

은빛 물든 흥성 오서산, 가을정취 폴폴



가을 오서산 은빛 역새물결 절경.광천토굴새우젓으로 김장준비까지.

흥성 오서산에 은빛 역새물결이 장관을 이루며 가을의 정취를 즐기려는 전국 등산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13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 활동 제한이 이어지며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을 챙기기 위해 주말마다 오서산을 찾는 가족 단위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다.오서산은 해발 791m로 내포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꼽히며 예로부터 천수만 일대를 항해하는 배들의 등대 역할을 해 '서해의 등대'로 불려왔다. 정상에 오르면 북쪽으로 흥성군 일대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서쪽으로는 천수만 일대의 풍경이 시원하

게 펼쳐진다.특히 가을이면 오서산은 은빛물결이 출렁이는 역새바다로 더욱 빛난다.오서산 9부 능선부터 정상까지 약 2~3km가량 이어진 역새가 장관을 이루며 가을의 정취를 더욱 깊게 해준다.또한 오서산 상담마을 영농조합 법인에서는 오서산을 찾는 등산객들을 위해 역새푸드당을 운영하고 마을주민이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건강도시락을 판매하고 있다.도시락 주문은 수령일 기준 1일 전 정오까지로 최소 주문수량은 15개다.메뉴는 표고버섯 톳 주먹밥 건강 영양밥 간식 꾸러미 등이다.역새푸드당 예약 및 도시락 주문은 오

서산상담마을영농조합법인으로 문의하면 된다.하산 후에는 오서산 인근 용암리 토굴새우젓 거리와 광천 전통시장에서 가을김장 준비를 하는 것도 좋다.흥성의 대표지역특산물인 광천토굴새우젓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토굴 속에서 자연발효돼 살이 단단하고 쫄깃하며 단맛이 나고 짭짤함이 희고 맑은 것이 특징이다.흥성군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흥성의 명산인 오서산에 오셔서 가을을 만끽하시고 가을김장을 위한 광천토굴새우젓도 준비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가을 산행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단체 산행은 자제하고 동행 인원은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고정화기자

“김대중 대통령 고향 하의도 ‘김해시의 섬’ 되다”

전남 신안군 선포식 개최 상징조형물 제막

1004개의 섬이 있어 ‘천사의 섬’으로 불리는 전남 신안군이 군내 다수의 섬 중 하나인 하의도를 ‘김해시의 섬’으로 선포했다.

김해시는 14일 국내 자매도시인 신안군을 방문해 김해시의 섬 선포식과 상징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신안군은 지난해 9월 김해시에서 열린 자매결연식에서 국제슬로시티 회원이라는 공통점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출한 고향이란 역사적 동질성을 들어 김해시와의 우호의 상징으로 고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하의도를 김해시의 섬으로 선포하겠다고 제안했었다.

이후 양 도시는 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 인근 태극공원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상징인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서로 마주하고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하고 김해시의 섬 선포를 준비해왔다.김해시는 신안군의 김해시의 섬 선포에 맞춰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구간을 ‘신안천사대로’로 노무현 대통령 생가 인근 봉하로 구간을 ‘하의로’로 명예도로명 부여를 추진 중이다.이와 함께 김해시는 선포식 이후 김해시 올해의 책 4종 550권을 신안군청과 신안군 도초도에

있는 섬마을인생학교에 기증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민주주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았던 역대 두 대통령의 뜻을 우리가 이어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양 지역 발전은 물론 영호남 동서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송인용기자

김지철 교육감,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전국 최초 유·초·중·고 무상급식과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 13일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2020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최초 유·초·중·고 무상급식과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으로 광역부문 대상을 수상했다.한국자치발전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격려하기 위해 시상한다.이번 시상식은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축사, 하혜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심사평으로 진행됐으며 대상은 국정부문에 4명의 국회의원, 광역부문 단체장에 김지철 교육감, 광역부문 지방의회에 6명의 의원, 그 외 기초부문 단체장 등이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충남교육청이 2019년부터 실시한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 등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권 강화와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특수성을 살려 교육자치 실현에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또한 2020년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



가 ‘최고등급’ 달성과 함께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교육행정 등 핵심정책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도민들에게 교육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는 인정 받은 것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대상 수상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충남교육의 비전과 혁신의 성과이다”며 “앞으로도 독창적인 행정을 통해 교육혁신과 지역발전에 모범이 되는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안성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운영을 위한 MOU 체결

안성시는 지난 13일 안성시청 2층 상황실에서 ‘재단법인제철일안식당 예수재립교한국연합회유지재단’과 재단시설을 장기무상임대차해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보라 안성시장, 박영석 행정복지국장, 강광원 축산면장을 비롯해 정원식 재단총무, 박근환 목사 등이 참석했다.협약내용은 재단이 안성시에 삼육청소년비전센터 2층을 10년간 장기 무상임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설치되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다.안성시는 현재 청소년시설로 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만 운영하고 있어 안성시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약3만2000명의 청소년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시는 이번 협약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이 설치·운영되면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



다.김보라 안성시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건전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을 점차 확충해 청소년복지서비스

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김남주기자

Advertisement for 'Chungcheong Nutrition Online' (충정영양 온라인) featuring 'H.O.T Festival 2020'. It includes a search bar for '사이소' (Cyso) and promotional text about nutrition and health products.

이만희 의원, 산사태 급증하는데 예방사업은 뒷걸음

사방사업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SOC사업에 장기적인 투자 지속돼야

이상기온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이 급증하는 가운데 산사태 예방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70%가 산악지역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면 태풍이나 집중호우 뒤 빈번하게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 사방사업 등 실질적 예방사업의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8,779건의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하고 인명피해는 14명, 이에 따른 복구비만 약 4,3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산림청은 이러한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우면산 산사태 이후 '전국 산사태 위험지도'를 만들어 5단계 위험등급으로 나누었고 이를 기초자료로 삼아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가장 위험한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즉 한 해 평균 2,000여억원이 투입되는 산사태 예방사업에서부터 산사태 현장예방단의 순찰반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산사태 취약지역은 2013년 2,928개소에서 지난해 기준 총 2만6,238개로 대폭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매년 산사태위험지도를 기반으로 조사대상지를 선정하고 기초조사와 실태조사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산

사태취약지역을 선정·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2013년 대비 9배 가까이 증가하고 취약지역 내 산사태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방사업 등 예방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방사업의 예산은 2016년 2,864억원에서 2020년 1,402억원으로 절반이 넘게 감소했다. 이로 인해 현재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총 1만2,292개소로 산사태 취약지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만희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해줘야 예산과 대책이 따라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사방댐이야말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SOC 사업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청소년단체 활동 담당교사들에 대한 승진가산점, "교육청마다 제각각"

강득구 의원, "교사부담 가중과 형식적 활동, 학교를 넘어 마을교육공동체로 전환해야"

수십년 동안 초·중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심 역할을 해온 청소년단체 활동이 담당교사들의 업무부담 가중, 여기에다 교육청마다 제각각인 승진가산점 등으로 교사들의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서울/경기/인천/광주/대구 등 9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청소년단체 담당교사 승진가산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지역교육청별로 청소년단체 담당교사 승진가산점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역교육청별 승진가산점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교육청/경기교육청의 경우 월 0.006점, 인천교

육청의 경우 월 0.06점, 울산교육청의 경우 월 0.003점, 대구교육청의 경우 월 0.002점,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월 0.0001점 등인 반면, 광주교육청/강원교육청/충북교육청 등은 가산점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각 교육청별로 12~17개에 달하는 청소년단체는 중앙연맹의 기본 원칙을 따르되, 학년 초에 학교별로 학생단원을 모집하고 일 년 계획을 학교의 담당교사가 작성해 필요 예산을 수요자부담의 원칙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학교들은 해마다 학년 초에 담당교사를 선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 외 시간인 주말에 학생들과 체험활동을 가거나 캠핑과 같은 야외 활동을 해야 하고 안전의 문제까지 온전히 떠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당교사 선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 교육청 별로 담당교사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공여지책

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 개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수 십만원에 달하는 단복을 구입하고 난 후 어쩔 수 없이 3년 동안 반복되는 활동을 하게 되어 학생들의 불만도 높다. 외국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스카우트 활동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마을과 연결고리를 가지며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특별한 체험 활동이 없었던 시절에 학교마다 있었던 청소년 단체들은 학생들에게 로망이었다 상황이 많이 달라진 지금까지 같은 규정과 방식으로 청소년단체를 운영하고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의 경우처럼, 혁신교육지구와 같은 마을교육공동체로 청소년단체 활동을 확장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귀성/기자

아동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었다

현재 수사 중인 강원·충남 정교사 3명은 직위해제, 인천 기간제교사 1명은 계약해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난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이 교육부·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는 판매자에게 20만원을 보내, 아동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3만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건을 내려받았고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착취물을 200여건을 내려받았다.

이 4명의 교사는 최근까지 담임을 역임하며 교직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의 기간제 초등교사가 입장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밝혀진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이다. 교



육당국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14년 교육부는 교사 성범죄를 근절한다며 '윌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뒤에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경징계 관행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0년 6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기타 음란물 유포 관련 징계한 건수는 총 12건이고 견책 등이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다. 이만희 의원이 제출받은 인천시교육청의 관련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2016년 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

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징계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같은 해 또 다른 고등학교 교사는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인터넷에 배포했지만, 구두경고 수준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이만희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교육부는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이외에 더 연루된 교사가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성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순희/기자

사관학교 자진퇴교 증가 추세, 대책 마련 필요

대한민국 군은 '국가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정예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육·해·공 각군에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연간 인당 약 6,000만원을 들여 장교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사관학교 생도들의 자진퇴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관학교별 중도 퇴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육·해·공사 및 3사관학교 퇴교 인원은 총 428명이며 그중 자진퇴교자는 286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자진퇴교 인원은 2016년 55명, 2017년 49명, 2018년 56명, 2019년 67명, 2020년 59명으로 2017년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5년간 육사 72명, 해사 54명, 공사 42명, 3사 118명이 자진퇴교를 선택해, 입학정원 대비 해군사관학교의 자진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다만 해군사관학교는 2018년 자진퇴교자가 21명에 달하자 퇴교자 줄이기에 적극 나서 2019년 6명, 2020년 4명으로 퇴교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한편 자진퇴교 이외의 퇴교사유로 퇴교한 인원도 5년간 142명에 달했다. 사유별로는 성적 불량 22명, 규정위반 85명, 질병 등 기타사유가 35명이었으며 학교별로는 육사 22명, 해사 32명, 공사 18명, 3사 70명이었다. 연간 평균 퇴교인원을 연간입학정원으로 나눠 산출한 퇴교율은 해군사관학교가 압도적으로 높은 10.1%로 나타났다.



연간 170명이 입교하는 해군사관학교는 5년간 총 86명, 연평균 17.2명이 퇴교한 것으로 확인됐다. 550명이 3사가 연평균 37.6명 퇴교로 6.8%의 퇴교율을 기록했고 육사 5.7%, 공사 5.6%가 뒤를 이었다. 11명의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육·해·

공사 생도에게는 직·간접적으로 약 2.3억이, 3사 생도에게는 약 1.27억이 국비로 지원된다. 김민기 의원은 "사관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퇴교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퇴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임영식 / 부회장 박상관 / 사장 박두석 / 편집국장: 최재은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홍신에이스텔 701호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naver.com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경기.가50079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제 부: 내선 (114) 오 퍼 니 언 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구독신청, 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팩 스: (02)2060-4147

감동양주
신성장·새지평

함께하는 감동 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Yangju
양주시

영암군, 수소연료전지 레저선박 상용화사업, 첫 발을 내딛다

한국형 뉴딜 대응 영암형 그린뉴딜 자체사업 발굴

영암군은 조선산업 다각화·신성장 동력 창출의 일환으로 '친환경연료 레저선박 상용화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본 사업은 한국형 뉴딜사업에 대응하는 영암형 그린뉴딜분야 직접 사업으로 영암군은 전남테크노파크와 ㈜빈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m급 수소연료전지 레저선박을 투자 개발해 본격적인 '친환경연료 레저선박 상용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암군 소재 대불국가산업단지는 현대삼호중공업을 중심으로 조선업 관련 기업체들이 산단 입주기업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조선산업을 기반산업으로 집적화·특화된 국가산단이다.

하지만 대형선박 블록 제조·조립 등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사업에 대부분 편중되어 있어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로 인한 국제 조선경기 동향에 따라 국내 조선경기 또한 막대한 영향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UN 산하 국제해사기구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우리나라에도 적용됨에 따라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최소 40%, 2050년까지는 50%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선박용 연료유를 황산화물 함유율을 현행 3.5% 미만에서 0.5% 미만으로 낮춘 저황유를 쓰도록 하는 등 강력한 환경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운행중인 컨테이너선 1척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과 조미세먼지는 트럭 50만대 분량에 달하고 황산화물 배출량은 승용차 5천만대 분량에 육박한 실정으로 전기·수소연료전지 등의 그린에너지 생산과 친환경 경선박 제조는 미래의 지구를 위한 환경정책의 중대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영암군에서는 이처럼 대불국가산단의 조선산업 분야의 사업구조 확대와 국제 환경 규제 및 정부·수소 2030정책에 부응하는 대안으로 고부가가치의 친환경연료 추진 레저선박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신산업 성장동력을 확보 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그린 뉴딜사업 관련 국고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약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 '조선산업지원센터'는 전남 서부권역 조선산업 기업육성과 지원 거점역할을 하고 있다.

전기·수소연료전지 추진 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소형선박을 개발 제조하는 스타트업 기업인 ㈜빈센은 선박용 전기 추진장치와 수소연료전지 공기 공급장치 등의 특허를 다수 보유한 선도업체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현대·기아자동차, 경북테크노파크 등의 국내 다양한 기업·기관들과 기술제휴를 맺으며 친환경 선박의 연구와 상용화에

드디어 떴다 안동편, 초대박 한국관광공사 해외홍보 영상

최근 국내의 선풍적 인기를 끌고 온 한국관광 홍보 바이럴 영상의 안동 편이 폭포, 강릉 편과 함께 유튜브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13일 공개됐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난 7월 말 해외 홍보를 위해 제작한 Feel the Rhythm of Korea 서울, 부산, 전주 편은 조회수 3억 뷰를 눈앞에 두고 있다. 후속으로 제작된 안동 편도 퓨전 국악 그룹 이남치와 댄스 커플인 엠비큐어가 등장해 팝 스타일을 가미한 한국의 전통음악에 현대적 춤사위를 섞어 안동 곳곳을 보여주는 100초짜리 영상이다.

영상은 훈장 선생님이 카세트 버튼을 누르고 '신의 고향'이라는 음악이 흘러나오며 시작된다.

이어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에서나 나올 법한 안개 낀 만송정의 신비로운 속에서 특색있는 춤사위를 보여주며 부용대와 하회탈춤 전수로 풍류향, 병산서원 등을 배경으로 전통 춤의 성장을 이추면서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산업 선점으로 한국형 뉴딜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편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과 기술개발 사업으로 미래 에너지 원인 수소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 선박분야 신규시장 창출의 대표모델 육성과 지역 민간기업 간 융복합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루면서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미래 신산업 선점으로 한국형 뉴딜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상은 훈장 선생님이 카세트 버튼을 누르고 '신의 고향'이라는 음악이 흘러나오며 시작된다.

이어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에서나 나올 법한 안개 낀 만송정의 신비로운 속에서 특색있는 춤사위를 보여주며 부용대와 하회탈춤 전수로 풍류향, 병산서원 등을 배경으로 전통 춤의 성장을 이추하면서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산업 선점으로 한국형 뉴딜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전북청년허브센터-효성도내 청년취업의 디딤돌 '전북청년 취업캠프' 운영

자소서 작성법, 면접스킬 등 실질적인 취업 역량교육 제공

전북청년허브센터는 도내 청년의 취업준비를 돕기 위해 '효성과 함께하는 전북 청년 취업캠프' 참가자를 오는 20일까지 도내 소재 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청년 취업캠프'는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2층 교육장에서 운영되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소서 작성, 면접스킬, NCS, 이미지컨설팅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효성인력개발원에 근무하는 현직자가 강사로 참여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 비즈니스 에티켓 등의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취업캠프는 전문 무상교육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 수료 시 참가자에게 수료 이수증, 교육수당 제공, 기념품, 증명사진 촬영 및 이미지 과

일을 제공할 예정이다.

캠프 참가자는 전북대, 군산대, 전주대, 우석대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해당 학교의 대학취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효성과 함께하는 전북청년 취업 캠프를 통해 취업 준비를 하는 도내 청년들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청년 여러분의 목표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박광진 센터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취업 정보를 얻는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전북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효성과 함께하는 전북청년 취업캠프

청년 취준생들을 위한 취업성공 역량강화교육

자소서 # 면접스킬 # NCS특강 # 노무법 # 이미지컨설팅

Cover Letter
RESUME

교육일시: 2020년 11월 5일(목) ~ 7일(토)
1일차 11/5(목) 14:00-18:30
2일차 11/6(금) 14:00-18:30
3일차 11/7(토) 10:30-17:00

강의내용: 1일차 - 효성 교육프로그램/노무법
2일차 - NCS특강(자소서/면접스킬) / 자소서
3일차 - 면접특강/이미지컨설팅(화려한 자소서)
NCS특강(문제해결/의사소통능력)

신청방법: 교육대상 - 전북청년 24명
신청접수 - 2020.10.7.(수)~10.20.(화)까지
재출서류 - 참가신청서
접수처 - 대학 취업지원과 or 대학알리자센터
이메일접수 (공고문 문안처 참고)
*협력대학 - 군산대,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강의장소: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2층
주소: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45, 2F

주최/주관: 전라북도, (주)효성,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청년허브센터
협력: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문의: 전북청년허브센터 063-220-8915



태안군, 생명나눔 활성화 위한 '그린라이트 캠페인' 펼쳐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근흥면 '안흥나래교'서 실시

태안군이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손잡고 '그린라이트 캠페인'을 추진한다. '그린라이트 캠페인'은 '생명나눔의 불을 밝힌다'는 의미로 장기기증을 상징하는 초록빛을 지자체의 주요 대교 및 랜드마크에 점등하는 것으로 생명나눔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군은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근흥면 '안흥나래교'와 남면 '네이처월드'에 '그린라이트'를 밝혀 생명나눔 캠페인에 동참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생명나눔 그린라이트 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생명나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생명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군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앞장서는 군 보건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록 빛 희망을 전하는 생명나눔 그린라이트'는 태안군 근흥면 '안흥나래교', 남면 '네이처월드'를 비롯해, 서울 경기 부산 인천광역시 대구 제주 세종 순천 여수 등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한 장기기증 인식조사에 따르면 긍정 55.8% 보통 35.4% 부정 8.8% 등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실제, 뇌사 장기기증자는 지난 5년 동안 2015년 501명, 2016년 573명, 2017년 515명, 2018년 449명, 2019년 450명으로 급격하게 줄고 있는 반면, 장기이식을 받으려는 장기 이식 대기자는 2017년 3만 4423명, 2018년 3만 7217명, 2019년 4만 253명으로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여성회관, 다문화가족 위한 비대면 헬러윈 행사 마련

"집에서 함께 즐겨요 해피 홈 헬러윈"

부산시 여성회관은 오는 10월 19일부터 31일까지 2020년 다문화가족 온라인 어울림마당 '해피 홈 헬러윈'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월의 세계적인 문화 '헬러윈'을 주제로 하는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족 150여명이 헬러윈 모자·소품 만들기 헬러윈 케이크 만들기 LIVE 헬러윈 분장을 가정에서 체험하고 헬러윈 가족사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극복 응원 활동 등을 온라인에 공유하는 것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여성회관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다문화가족이 가정에서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꾸러미를 드라이브 및 워킹스루 방식으로 전달한다.

또한, 행사 전용 사회관계망서비스인 네이버 밴드 '해피 홈 헬러윈'을 통해 참여자와 인증사진과 댓글로 상호 소통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극복 응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사회를 향해 이기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확산하고 다문화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다문화가족이 각자의 모국어로 작성한 글로벌 메시지를 SNS 사진 댓글로 전달하는 활동이다.

김혜윤 부산시 여성회관 관장은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10월의 세계적인 문화 '헬러윈'을 집에서 즐기고 SNS로 공유하는 비대면형 온라인 행사로 진행된다"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가족애를 고취하면서도 코로나19 극복 응원을 사회에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년 다문화가족 온라인 어울림마당

해피 홈 헬러윈

즐거움, 힐링,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 함께 즐겨요!

2020.10.19.(월) ~ 10.31.(토)

대상: 다문화가족 150여명

일정: 10.19.(월) ~ 10.31.(토)

1. 체험꾸러미 배부 ~ 10.21.(수)까지

2. 해피 홈 헬러윈 10.19.(월)~10.31.(토)

가족 체험: LIVE(온라인)분장, SNS공유

참여방법: 1. 온라인 신청 (10.27.(토) 15시) 2. 온라인 접수 (10.27.(토) 15시) 3. 온라인 접수 (10.27.(토) 15시)

문의: 051-610-2026 (~10.16.(금)까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정부·지자체·산·학·연 참여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 출범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과 DNA 기반의 '디지털 뉴딜'에 발맞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14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부처와 자율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상태, 도로상태, 교통상태, 교통신호 등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자율주행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등의 기초 데이터 분류와 정의, 이를 조합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 서비스 적용 사례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출발방지 서비스 등을 구현하려면 차량의 위치, 속도, 시간 등의 데이터가 차량 간에 교환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환되는 데이터의 호환성과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표준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현재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대구 수성, 세종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실증 사업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전국 운행으로 이어지면 실증이 사용되는 각종 데

이터를 선제적으로 표준화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데이터에 대한 국제 및 국가표준이 정립되지 않아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단체표준 등을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출범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과 연계해 운영되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실증사업 참여기관 등에서 표준화 활동 경험이 풍부한 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해 국가표준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산업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사업·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산업체와 함께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민간 표준 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 도로와 교통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국가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기술 선진국들과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 개막

10월 16일 ~ 18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진행

순천문화재단과 지역문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린다.

'전국생활문화축제'는 2014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전국 단위의 생활문화 동호회 축제로서, 올해는 '지역이 만들고 모여서 나누고 모두가 누리고'라는 슬로건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생활문화 속에서 스스로 치유하고 지역 교류를 통해 희망을 전달하는 장으로 꾸며진다.

전국 생활문화인이 참여하는 온택트 축제 16일 개막이벤트 축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해 온택트 축제로 치러진다.전국의 생활문화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시 및 행사를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 기간 동안 경기 군포시와 인천 부평구, 울산 시에서도 생활문화축제가 진행되며 타 지역 축제 현장을 축제 개최지인 순천시와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결해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축제의 주무대인 순천만국가정원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300개의 멀티화면을 설치해 개·폐막식은 물론이고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전국 망으로 연결해 운영한다.

또한 10월 12일부터 '집생축tv' 유튜브 채널을 열어 전국생활문화인들의 활동상을 하루 8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ZOOM 화상 시스템을 활용한 '생활문화 마스터클래스'에서는 홈트레이닝, 댄스, 노래, 악기 등의 분야별 마스터

클래스를 온라인 중계로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즐기는 생활문화 체험 키트 '소일담 꾸러미'를 통해 순천 미니정원을 꾸미는 온택트 체험을 할 수 있다.

전시 프로그램, 순천만국가정원서 8일부터 전시 중

이번 축제에 마련되는 전시 프로그램은 순천을 비롯한 전국의 생활문화인들이 직접 참여·기획한 것으로 지난 8일 개장식을 마치고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순천만 인근 주민들이 갯일을 할 때 사용하는 뽕배를 활용한 '순천만 생태·공감展'과 장성군 초등학교 1000여명이 참여해 황룡강의 아름다움을 담은 '황룡강 르네상스-천개의 꿈'이 전시되고 있다. 또한 '놀이면 뭐하니 릴레이展'은 순천을 비롯한 전국의 생활문화인들이 릴레이로 참여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 전시회로 공연예술, 시각예술, 리빙&라이프, 캠핑, 문학,키덜트, 영상의 7개 분야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이외에도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회 전국생활문화밴드 경연대회와 '포스트 코로나, 생활문화의 혁신'란 주제로 마련되는 생활문화 랜선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무엇보다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는 코로나19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있다.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는 사전·행사 중·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되며 전시회장과 행사장 입퇴장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동선으로만 이동해야 하며 관람 가능 인원도 시간제



로 제한돼 운영된다. 순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문화가 있는 삶과 일상은 위로와 용기를 심어준다"며 "온택트로 처음 시도하는 이번 생활문화축제를 통해

생활문화의 가치인 공동체 회복과 전국의 생활문화인들을 하나로 묶고 전 국민에게 일상 속 생활문화를 널리 알리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경남도 인재개발원, 유희공간이 문화전시 공간으로 탈바꿈

인재개발원 로비 등 유희 공간 활용, 도자기·장승 등 도내 지역작가 예술 작품 9점 전시

경상남도인재개발원이 로비와 복도 등 유희 공용 공간에 도내 명장들의 혼과 열정이 담긴 도자기·장승 등 예술작품들을 전시해 교육생, 서부청사 직원과 청사 방문도민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인재개발원은 우선 올해 말까지 도내 지역 예술작가들의 작품을 로비 등에 시범적으로 전시하며 내년 부터는 시·군 및 협회 등을 통해 추천 받은 작품을 1~2개월 전시해

지역 예술 작가에게는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교육생, 도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활동에 동참할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범운영 전시에서는 고성에서 활동 중인 전통도예가 일송요 활동구 작가의 작품과 진주의 장승·서각 최해럴 작가의 작품 9점을 선보

이고 있다. 황 작가의 작품은 '달항아리' 3점이 전시되고 있으며 최 작가의 작품은 '장승이란 무엇인가?', '동행, 행복한 길 함께 가자', '만복' 등 6점이 전시되고 있다.

현재 인재개발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집합교육과 쌍방향 온라인 영상교육을 병행해 교육 운영 중이며 집합교육 재개 시 다양한 예술작품 전시를 통해 지역 내 예술인들과 인재개발원 교육생 및 도민들에게 열린 인재개발원으로 다가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규 인재개발원장은 "예술작품 문화전시를 통해 교육생, 도민 등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과 도내 지역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으로 도민들의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남 인재개발원이 창의적 인재 양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문화공간 전시와 더불어 도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인재개발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오영광/기자



이남출/기자

황금은어 자연산 친어 발안란 방류

영덕황금은어 자원조성 위해 1천200여 만립 생산

영덕군이 영덕황금은어 자원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영덕군은 지난달 18일부터 12일까지 산란기 황금은어 자연산 친어를 포획해 수정 후 발안란을 방류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발안란은 부화하기 전 난막을 통해 눈이 보이게 되는 알을 말한다.

이번 발안란 방류사업은 영덕군 자체 사업으로 영덕황금은어 종보존 회원들이 참여했다.

올해 1천200여 만립을 생산해 은어자원 조성을 위해 약 660 만립의 발안란을 오십천 등지에 방류했다.

나머지는 영덕황금은어 생태학습장에서 부화 후 내년 3~5월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 치어를 육성해 관내 주요하천에 방류하고 일부는 영덕황금은어축제에 사용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덕황금은어 축제가 취소돼 양식종이던 은어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판매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영덕군은 내년에도 양질의 영덕황금은어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안일환 해양수산과장은 "영덕황금은어 종보존을 통해 영덕황금은어가 영덕군 관광산업의 한 축

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어족자원 증식은 물론 오십천, 송천 등 황금은어 자연산란장 관리를 위해 9월부터 10

월말까지 2개월 간 내수면 불법어업을 감시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형/기자



창원시, 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개최

온라인 비대면 참여 병행

창원시는 13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창원시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및 문화콘서트'를 개최했다.

창원시 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는 국공립·법인·민간·가정·직장 5개분과 어린이집 종사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자 행사장에는 허성무 창원시장, 이지우 창원시의회 의장, 문순규 경제복지여성위원장, 연합회 회장단, 수상자 등 50여명이 참석하고 나머지 참여 희망 보육교직원은 온라인 zoom으로 비대면 참여를 병행해 진행됐다.

1부 행사는 참가자 입장을 시작으로 감사패, 표창패 수여, 대회사, 축사, 내빈참여 보육인들에게 보내는 희망메시지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2부는 정명민 강사의 '내가 즐거워야 아이들이 즐겁다'라는 주제로 문화콘서트가 진행되어 보육교직원에게 마음의 지식을 채우고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격려사에서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보육현장에 많은 혼란이 초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며 "우리 시에서도 보육교사라는 직업에 만족

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정명호/기자

광주시, 건설기술인 직무능력 향상 교육 실시

16일 기술직 공무원·공사공단 임직원 등 대상

광주광역시시는 오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시·구 기술직 공무원과 공사·공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교육 참석자 명부 작성, 발열 검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교육에서는 김창영 시 감사위원회 청렴기획담당이 '건설분야 청렴문화 확산'을 주제로 한 청렴교육을 한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건설공사 안전의식 고취'라는 주제로 건설분야 3대 악성사고 예방과 건설업 안전보건을 중심으로 교육한다.이어 동강대학교 토목조경학과 장서용 겸임교수가 '지진재해와 구조물의 내진설계' 강의를 통해 지진재해의 사례와 시설물별 내진설계 기준 등을 중심으로 시설물 안전을 위해 강화되고 있는 내진설계를 교육한다.한편 광주시는 보다 투명하고 건설한 시공과 함께 건설인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의식 전환을 위해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해마다 2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김경호 시 건설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이 기술직공무원과 건설기술인 간 정보

를 공유하고 건설기술 동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설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울진 왕피천에 은빛연어가 돌아왔다. 연어 첫 포획

10.12일 왕피천에서 어미연어 7마리 포획, 전년보다 10여일 일러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는 지난 12일 올해 처음으로 고향인 울진군 왕피천으로 돌아온 어미연어 7마리를 포획했다.

이번에 소상한 연어는 지난해에 비해 10일 정도 일찍 포획됐으며 평균중량 2.23kg, 평균전장 69.33cm의 어미연어로 약 3~4년 전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방류한 어린 연어가 성장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민물고기연구센터는 어린연어 인공부화 방류사업을 위해 울진군 왕피천 일원에 어미연어 포획장을 설

치하고 10월부 11월까지 약 2개월간 어미연어 약 1500마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획된 어미연어에서 얻은 성숙한 난과 수컷 연어의 정액을 채취해 인공수정 시킨 후 약 60일간의 부화기간을 거쳐 튼튼한 어린연어로 탄생되며 이렇게 부화된 어린연어는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사육 관리해 내년 2~3월경 울진 왕피천, 영덕 오십천에 약 75만 마리의 어린연어를 방류할 예정이다.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는 매년 연어자원 회복을 위해 어린연어 인공부화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표지방류를 통한 회귀년, 회귀율 등의 과학적인 생태자료를 확보해 연어의 생태 및 특성

을 연구함으로써 북태평양소해성어류위원회의 회원국으로서의 지위향상과 연어 모친국으로서의 자원회복을 위해 힘을 보탬이다.

이석표지 : 수은 자극을 주어 어류의 이석에 나이트 모양을 형성 - 경복 민물고기연구센터는 2013년 NPAFC에서 고유 이석표지 번호 획득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은 "경북도는 어미 연어가 원활하게 바다에서 하천으로 소상할 수 있도록 하구를 개방하고 소상료를 정비하는 등 성공적인 어린연어 인공부화 방류사업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내수면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형/기자

임실군, 농작물 피해주는 유해야생동물 '꼼작마'

도내 유일하게 군비 15% 더 늘려 75% 지원

임실군이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에 발 벗고 나섰다. 군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27일까지 '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사업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이 지속적으로 개체수가 늘어감에 따라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반복되는 유해야생동물의 경작지 진입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 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차단 시설물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농가들이 손수 기운 농작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타자치단체에 비해 지원비율을 15% 더 높였다. 당초 이번사업은 설치사업비 60%는 보조금, 40%는 농가 자부담하는 사업이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심민 군수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군은 군 자체예산 2억3천3백만원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군비 보조금을 15% 더 올려 75%까지 지원하고 농가의 자부담은 25%로 크게 낮춰주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400m 기준 태양광 전기울타리 사업에는 2백1십만원, 능형철조망에는 2백3십2만2천원의 보조를 받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은 도내에서 단독적으로 보조율이 높아 보다 많은 농가들이 지원을 받아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 효과가 크고 농가

부담 또한 크게 줄어들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작지가 소재하고 있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12월 중으로 대상 농가를 선정해 내년도 농작물 수확시기 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군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했다. 김송일기자

순창군, 아프리카 돼지열병 선제적 차단방역 총력

순창군은 지난 9일 강원도 화천군 양돈농가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위험도가 고조됨에 따라 행정력을 동원해 선제적 차단방역 활동에 들어갔다.

최근 야생 멧돼지에서도 양성 개체가 760여 건이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돼지열병 발생 위험도가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군은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농업기술센터내 종합 상황실을 설치, 관내 돼지 19호가 32,000여두의 사육농가에 대해 전화와 문자 발송을 통해 방역 예찰과 농장 내외주변 소독철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 특별방역기간으로 거점소독초 2곳을 운영해 우제류 및 가금류 관련 축산인·축산시설·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소독을 추진하고 있다.

방역 취약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 공동방제단 소독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조치 방역태세에 철저히 기하고 있다.

참고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와 멧돼지가 감염될 경우 발열이나 전신의 출혈성 병변을 일으키는 치

사율 100%에 가까운 국내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이다.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오염된 육류의 경우 매우 위험한 감염원이기 때문에 해외 여행 후 국내 입국시 동물이나 육류, 햄, 소시지 등의 축산물을 해외에서 가져오지 말아야 하며 특히 축산 관계자들은 발생지역 축산 시설 방문을 삼가고 해외여행중 입

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해야 하며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 도 철저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정주 농축산과장은 "악성 가축질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사람·차량 통행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소독방역을 강화하는 등 가축방역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인권 사각지대 해소' 민·관 협력 방안 모색

도 인권센터, 14일 충남인권사례 콘퍼런스 개최...발제·토론 등

충남도 인권센터는 14일 '충남인권사례 콘퍼런스'를 열고 관계기관 및 도민과 함께 도내 인권사례 해제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충남도민인권선언을 기념하는 인권문화주간을 맞아 충남인권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도 인권센터와 도내 인권단체, 인권지원기관, 도교육청, 도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가 참여한 가운데 연 이번 콘퍼런스는 충남 외국국적 미등록 아동 인권, 충남 북한이탈 여성 인권,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과제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발제와 토론을 실시했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충남이주배경 아동 인권 실태와 지원 방안', '경기도 사례'를 주제로 각각 발제하고 도내 무국적 아동에 대한 돌봄·교육·건강 등 인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우복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주배경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로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외국인 유아 보육·교육 지원 강화, 지역아동센터 이용 편의 제고 예방접종 공적 관



리 강화, 아동친화도시 사업과 연계한 여가·놀이 지원, 한국어 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 외국인 가족·부모 교육 실시, 외국인 가족 대상 한국어 정보 제공 확대, 다문화수용성 증진 사업 활성화, 미등록·무국적 아동 관리 방안 마련 등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선 송미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충남 북한이탈 여성 인권 실태와 지원 방안'을 주제로 북한이탈 여성의 인권 보호와 건강 증진, 경제적 자립 지원 방안 등을 제안했고 북한이탈 여성 당사자 등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과제', '서울학생인권센터의 역할과

과제' 발제를 진행한 세 번째 세션에서는 충남학생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센터 등 도내 청소년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토론을 펼쳤다.

도 인권센터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한 의견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도내 인권단체와 함께 협력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콘퍼런스는 도내 인권 소외계층의 인권 실태를 살펴보고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이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자리"며 "앞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정책을 발굴하고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안산시 상록구, 무단 방치차 일제 집중단속 실시

안산시 상록구는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일제 집중단속 및 자진처리 계도 활동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무료주차장, 골목길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등 범규 위반 자동차이며 무단방치 자동차를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단방치 자동차로 적발되면 자진처리 시, 20만~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소유의 토지,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의 차량 주차는 방치차로 인정이 되지 않아 처리가 어렵다. 상록구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조

를 편성·운영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주민들에게 주변에서 무단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상록구청 경제교통과 주·정차지도팀으로 적극 신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무단방치차 집중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며 도시미관과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정부기자

진주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 전역에 '양방향 비상소통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도시를 갖추게 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의 '시민이 언제나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억 8000만원을 확보해 원룸 및 주거 밀집지역과 범죄 취약지역 등 시 전역 702개소에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진주시가 구축한 양방향 비상소통시스템은 기존 CCTV 설치 지역에 비상벨과 방송시스템을

연계 설치해 사건사고 발생, 범죄 발생 우려, 화재 발생 등 위급 사항 발생 시 진주시 도시관계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서 소방서 등과 연계해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사업효과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방송을 통한 범죄예방, 사건사고 예방, 어린이 및 사회적 약자 안전홍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행동요령 전파 등 다양한 능동형 시민 안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10월 한달 간 시범운

영을 거쳐 11월부터 시 전역에 안전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며 CCTV가 설치된 안심구역에서 위급 시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영광기자



김 **전복** **대파** **울금**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몰 검색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81년 '금단의 땅' 부평 미군기지에 채워진 자물쇠 풀리다

역사를 담고 음악이 흐르는 문화도시 부평의 초석으로

81년 동안 '금단의 땅' 부평 미군기지에 채워졌던 자물쇠가 드디어 풀렸다. 인천시와 부평구는 14일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B구역 야구장 일원에서 '2020년 캠프마켓 개방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부평 캠프마켓 부지 반환 발표 이후 미군부대 공간을 시민들에게 처음 개방하는 것으로 미군이 야구장으로 사용했던 부지와 그 주변으로 이뤄진 B구역을 참가자들이 직접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부평에 위치한 일본육군조병창은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군수물자 공장으로 조선 병참기지의 상징이었다. 시간이 흘러 해방을 맞이했지만 이 공간은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1945년 미군이 인천항에 상륙하면서 조병창이 미육군 군수지원 사령부인 '에스컴시티'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6월부터 9월까지 북한군이 점령했던 3개월을 제외하면 냉전시대 속 국가 안위를 목적으로 부평의 알짜배기 땅은 또 다시 미군이 주둔하는 금단의 땅이 됐다. 부평구는 이번 개방행사를 첫 걸음으로 삼아 캠프마켓 부지를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와 부평구는 각각 시민 참여위원회, 부지 활용에 대한 자문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 1층과 시청 본관 1층, 캠프마켓 토양정화 현장사무실에 부평미군기지 주민 참여 소통박스를 설치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은 2021년 6월까지 이어지며 제안된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법정 '문화도시 부평' 지정을 앞두고 부평만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유치와 캠프마켓 부지에 담긴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부평평화박물관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캠프마켓을 포함한 부평 에스컴시티 인근은 한국 대중음악의 발상지로 1950~60년대 미군을 통해 록큰롤 등 각종 음악이 전파되면서 클럽이 활성화되고 수많은 뮤지션들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한국 대중음악을 이끌었던 역사적 장소다. 구는 최대한 미군 주둔지역에 남아 있는 역사적 문화유산을 모아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81년 동안 단절됐었던 부평 캠프마켓이 드디어 소통과 공존의 공간으로 개방됐다"며 "오늘은 일제강점기 조병창, 주한미군기지는 역사가 미래세대와 연결되는 매우 뜻 깊은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공간을 부평의 역사와 문화 가치를 후대에 알릴 수 있는 '역사를 담고 음악이 흐르는 문화도시 부평'의 초석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재현/기자

아름다운 항구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인천을 잇는 부미스재즈오딧세이의 '탱고'

공연장/네이버TV, 온·오프라인으로 즐기는 '커피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의 대표 브랜드 공연 '커피콘서트'가 온·오프라인을 모두 동원해 관객들을 만난다.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0월 21일 오후 2시에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객석 띄어 앉기'로 오프라인 공연을 진행하는 동시에, 녹화를 병행해 온라인 콘텐츠로도 제공하는 것이다.

오프라인 공연 시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커피 제공은 생략된다. 입장 시 출입확인 및 발열체크, 공연장 내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강화해 공연장을 찾은 관객과 스텝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0월 무대의 주인공은 2014년에 결성한 '부미스 재즈 오딧세이'이다.

버클리 음대와 서울예술대학 실용음악과에서 재즈 작곡과 연주를 전공한 최부미를 중심으로 결성한 이들은 재즈를 기반으로 클래식, 국악, 월드뮤직 등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선보이며 음악적 실험을 통해 끊임없는 진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커피콘서트 무대에서는 지구 정반대편의 나라, 아르헨티나의 아름다운 항구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음악과 문화인 탱고의 세계로 안내한다.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대표곡인 'Adios Nonino'와 'Liber tango', 영화 '여인의 향기'의 삽입곡인 'Por una cabeza' 외에도 심수봉의 '백만송이장미'와 자작곡인 '성냥사세요' 등 신선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음악과 화려한 연주로 10월의 커피콘서트를 물들인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올해 한 차례도 오프라인 공연을 진행하지 못한 터라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소식이 들리자마자 관객들의 문의가 벌써부터 뜨겁다" 또한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인천은 항구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 한의 정서와도 닮은 듯한 탱고의 멋과 맛을 살리는 무대를 준비 중이다. 정열적인 탱고음악과 댄스 퍼포먼스를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본 공연의 녹화영상은 10월 28일 오후 2시에 인천문화예술회관 네이버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료로 오픈된다. 2008년에 시작해 5만6천여명의 관객들과 만나며 인천문화예술회관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커피콘서트'는 매달 한번,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마티네 콘서트로 수많은 마니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김중남/기자



교과서 속 세계민요를 아카펠라로 만나다

금천문화재단, '교과서 속 세계민요 여행' 공연 개최

금천문화재단은 오는 16일 금나래아트홀 기획공연으로 '교과서 속 세계민요 여행'을 금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서는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 각 대륙의 대표적인 전통 민요를 아카펠라의 환상적인 하모니로 선보인다.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교과서 속 민요인 '클레멘타인', '메기의 추억', '라쿠카라차', '그린슬리브스' 등을 재미있는 영상, 해설과 함께 아카펠라로 재구성해 친숙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전통 민요음악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광고 음악과 방송 로고송으로 유명세를 타며 대중적으로 사랑 받고 있는 대한민국 아카펠라 1세대 '다이아'가 출연해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공연은 10월 16일부터 기간 제한 없이 금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만날 수 있다. 한편 이번 작품을 연출한 김민우 프로젝트 그룹은 기존의 틀에 박힌 공연이 아닌 탈장르, 탈형식의 퍼포먼스를 추구하는 단체로 한국 고유의 민속악인 판소리 반

주를 서양밴드가 연주하거나, 우리의 전통 민요가 아카펠라로 표현되는 모습 등 신선하고 이례적인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용진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며 "직접 소통하고 만날 수는 없지만 이번 공연이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단원 김홍도의 도시 안산,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개최

윤화섭 시장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으로 발 묶였던 시민들, 오랜만에 전문문화 즐기는 기회 되길"

안산시가 주관하고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는 '위더스제약 2020 민속씨름리그 2차 안산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및 제1회 안산 김홍도 여자장사씨름대회'가 오는 15~21일 안산올림픽기념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13일 시에 따르면 대회는 15일 남자부 태백장사 예선전을 시작으로 16일 오후 2시 개회식이 개최된다. 16~20일에는 남자부 태백급, 금강급, 한라급, 백두

급, 단체전 순서로 21일에는 여자부 장사 결정전과 단체전이 진행되며 대회 기간 동안 매일 오후 2~4시 KBS N 스포츠 채널 및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경기종목으로는 남자부 태백급, 금강급, 한라급, 백두급, 개인전과 단체전에 12개 팀 110여명이 참가하며 여자부에서는 매화급, 국화급, 무궁화급, 개인전과 단체전에 8개 팀 4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전날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1단계로 완화되면서 체육관 수용인원의 30%인 약 300명의 관객이 선착순 입장해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안전한 대회를 위해 체육관

내부를 수시 방역하고 선수, 임원 및 대회관계자는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일반 관람객은 경기장 출입구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관리대장을 작성한 뒤 입장할 수 있다. 윤화섭 시장은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시민들의 활동이 제한적이지만, 이번 김홍도 씨름대회를 적은 인원이나마 관중들이 직접 보고 즐길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단원 김홍도 도시의 자부심을 갖고 역동적인 전통문화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동대구 2차 비스타동원

광명시, 지역안전현황 기본 조사.국제안전도시 공인 토대 마련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기본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광명시는 지난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기본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지난해 9월부터 광명시 안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관련부서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광명시는 지난해 9월부터 이번 용역을 진행했으며 이날 보고회에서는 광명시 지역안전수준 진단 및 안전사업 추진방향 설정과 전략을 주된 내용으로 그간 연구용역의

며 이번 용역에서 제기된 보완 사항과 앞으로의 분과별 안전사업 평가와 관리카드 작성을 위한 2차 연구용역을 2021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박남수 산학협력단장은 "그 동안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기본조사 연구용역 과업을 수행하면서 코로나 19라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으나 광명시와 안전도시위원들과의 협조로 잘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시민단체 주도형 국제안전도시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또한 내년 실시하는 2차 용역에서는 광명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시민이 체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수립해 국제안전도시로 한단계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순희.최정무/기자

성동구,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승인

성동구,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회원 도시' 가입 승인

서울 성동구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회원 도시'로 가입 승인을 받았다 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WHO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활력 있고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41개국 1,000여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다. 이번 승인으로 성동구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의지가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구는 지난해 10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 지난 5월에는 '성동형 고령친화 3개년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스마트 100세 포용도시'를 목표로 지속가능 100세 포용도시 찾아가는 100세 포용도시 활동지원 100세 포용도시 살고 싶은 100세 포용도시 함께 하는 100세 포용도시라는 5가지 전략으로 36개의 전략 과제를 세웠다. 구 관계자는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민간 복지 자원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소통해 주민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향상할 수 있도록 힘을

연령(출생년도)	사업기간
만 75세 이상 (1945.12.31 이전 출생자)	2020.10.13.(화) ~ 2020.12.31.(목)
만 70~74세 (1946.1.1 ~ 1950.12.31 출생자)	2020.10.20.(화) ~ 2020.12.31.(목)
만 62~69세 (1951.1.1 ~ 1958.12.31 출생자)	2020.10.27.(화) ~ 2020.12.31.(목)

접종기관: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건소는 방문 전 확인 필수)

사전예약 신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예약 이용

의료기관 방문 시 행동수칙: 지정된 예약일에 유선확인 후 방문, 보호자와 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대상자 보호자는 코로나19 증상 있을 시 내방 안 달라기, 접종 후 현장에서 15~30분 머물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확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르신, 아이들,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곧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라며 "이번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인증을 계기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3개년 실행계획 추진을 통해 모든 세대가 노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온라인으로 열린다

10월 27일부터 기념식, 수다살롱, 선택 활동, 이벤트 등으로 진행

기념식 서대문구 수다살롱: 2020년 10월 27일(화) 13:00 ~ 15:00

선택 활동 및 이벤트 참여: 2020년 10월 27일(화) ~ 11월 6일(금)

선택 활동 (택1): 북음향볼 or 평반짜장 요리키트 (2인분), EM 천연비누 만들기 (주물럭 비누, 가열X), 마크라메 월행양만들기

서대문구는 이달 27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2020년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가 열린다 고 밝혔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이번 행사는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장애인 복지분과가 주최하고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이 주관한다. 당초 올해 4월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열릴 예정이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기됐다. 이번엔 사전 제작한 동영상 유튜브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념식과 수다살롱을 27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볼 수 있다. 기념식은 '동그라미, 동행하는 그대라서 미소지어요'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열리며 장애복지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도 시청할 수 있다. 수다살롱은 장애인 단체와 복지관 이용자 및 종사자의 재미있는 일화를 사전 접수해 사회자가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택 활동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린다. 사전 배부되는 교육 자료를 갖고 동영상 보며 요리, 천연비누 만들기, 매듭공예 벽걸이 만들기 등을 실습할 수 있다. 수다살롱 사연 응모, 선택 활동 참여 인증 등을 통해 이벤트

에 참여하면 선착순으로 모바일 상품교환 쿠폰을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카카오톡 오픈채팅, 문자, 이메일을 통해 인증사진을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열리는 이번 한가족 한마당 행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성북구-LH, 청년 취·창업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성북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이들로 성북구청장과 오승식 LH서울지역본부장이 협약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를 계기로 청년 주거안정과 취·창업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LH가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성북구 안암동에 조성한 청년사회주택1호 '안암생활' 입주 예정에 따라 협력관계를 다지고자 실시됐다. '안암생활'은 기존 관공호텔을 기숙사로 용도변경해 조성됐다. 주거공간 122호와 커뮤니티 공간, 공유키친·세탁실 등 생활공유 공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적기업 '아이부키'가 운영을 맡는다.

성북구는 전국 최초 청년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해온 바, 그간 쌓아온 청년정책 인프라를 활용해 '안암생활' 입주자 및 지역 청년을 위한 취·창업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LH는 성북구에 관련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에는 7개 대학이 위치해 있고 약 13만명의 청년이 거주하고 있다. 청년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우리구에 청년 사회주택을 공급해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감사로 표한다"며 그간 SH와 도전속 등 직주협합형 청년창업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했는데, 성북구와 LH, 사회적기업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택 '안암생활'이 청년 사회주택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 발행시기 : '20.9.1.부터
-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관내 농협 방문
-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직장인 소득공제 30%
- ☎ 339-8822
-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포항시, 아태이론물리센터와 2020 Science In City Hall 행사 개최

'미술관의 물리학자'를 주제로 김상욱 교수와 언택트 과학 체험 강연 진행

포항시와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과학자와의 만남 프로그램 '사이언스 인 시티홀' 행사를 개최한다. '사이언스 인 시티홀' 행사는 지역민들의 과학적 소양 함양 및 과학문화 확산을 목표로 시작해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온라인 강연' 형태로 새롭게 기획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포항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사전 참가 신청자는 ZOOM을 통해 접속할 수 있고 참가활동 인증서가 제공 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tvN '알쓸신잡', '신기한 과학나라', KBS '도올학당 수다승철' 등으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김상욱 교수를 초청하며 김상욱 교수는 '미술관의 물리학자'

라는 주제로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미술에 대한 강연을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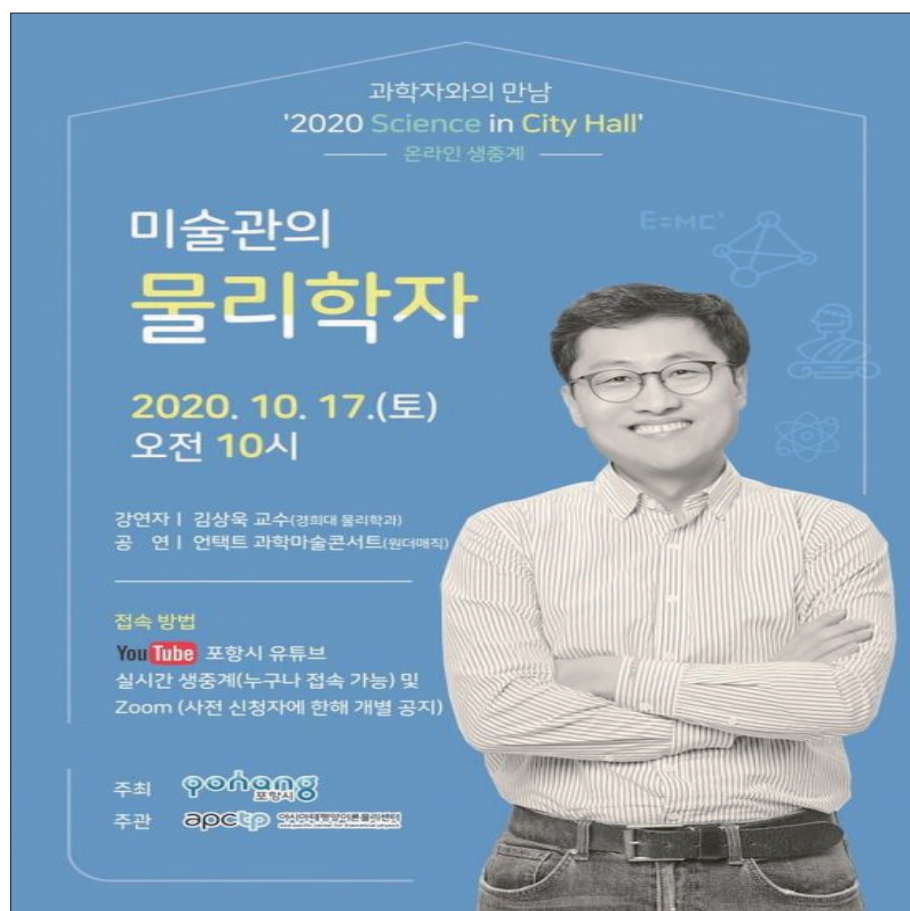
행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 학생들에게 과학실험키트를 제공해 강의 청취와 동시에 과학현상에 대해 직접 탐구할 수 있는 체험시간을 마련하며 이는 온라인의 경협적 한계를 극복하는 '적극 참여형 강연'으로 많은 호응이 기대된다.

강연 후에는 다양한 과학적 현상을 직접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윈더매지' 팀의 언택트 과학마술서트도 진행된다.

APCTP 방윤규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교육 및 문화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이번 행사가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흥미로운 과학문화 활동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쉽게 참여 가능한 다양한 활동을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적합한 방법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연구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형/기자



경주시 보건소, '정신건강 Drive in concert' 개최

세계 정신 건강의 날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경주시 보건소는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정신건강 드라이브 인 콘서트'와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15일 열리는 '정신건강 드라이브 인 콘서트'는 '위로 -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를 주제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 하고자 마련됐으며 EL팝오케스트라와 김기범 보컬, 박정환 바리톤이 음악의 기적을 선물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10명 중 4명이 정신건강이 나빠졌다고 응답하는 등 불안감, 중독, 우울 그리고 자살로 이어지고 실정으로도 정신건강 거버넌스 확립 및 다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콘서트는 차 안에서 비대면으로

관람하는 드라이브 인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경주 화랑마을 전시장 주차장에서 열린다.

위로가 필요한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커뮤니티' 교육/행사신청'신청하기'란에서 13일까지 사전접수 하면 된다.

아울러 정신건강의 날 기념 온라인 이벤트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진행 중이다.

이벤트는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커뮤니티' 이벤트 '신청하기'란에서 참여하면 되며 '초성퀴즈'와 '위로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반식/기자



고품질 마늘 생산을 위한 첫걸음은 이렇게

마늘 중구 소독 및 파종법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마늘 파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중구 선별과 소독, 분담 준비와 파종방법에 대한 지도를 펼치고 있다.

마늘 중구는 갈변증상과 상처가 없는 것으로 선별하고 흑색썩음균핵병·잎마름병·응애·선충 등 중구를 통해 전염될 수 있는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중구 소독을 실시한다.

중구 소독은 마늘 중구를 소독 약제에 1시간 정도 충분히 담갔다 그늘에 잘 말리면 된다.

마늘 파종 분담 준비 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검정 결과에 따라 알맞은 비료와 퇴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파종 전 토양소독을 실시해 토양전염 병해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습해를 방지하기 위해 두둑을 다소 높게 하고 배수로를 정비해야 한다.

파종을 할 때는 중구의 뿌리 부분을 밀고로 짝이 나오는 부분은 위로 심는다.

특히 짝이 나오는 부분을 옆으로 기울여 심거나 밀고로 향하게 심으면 발아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수확한 구의 모양이 좋지 않게 되어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파종 깊이는 중구 길이의 2-3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며 중구는 밀식이 되지 않도록 심어야 한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건전한 마늘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중구 선별 및 소독, 분담 준비, 파종방법을 적절하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딸기 현장맞춤형 컨설팅에 농가들 큰 호응~

성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딸기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현장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2020 전문농업기술교육(딸기현장컨설팅)'을 지난 7일과 14일 2회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관내 딸기재배 11 농가에 전문 컨설턴트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단이 합동 방문해 고품질 딸기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농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평소 재배기술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성주군은 매년 현장 중

심 기술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해 포도, 자두, 사과, 취나물, 아열대작물 등 참외소독보완작물 및 신소득작물 농가들을 육성해 지역농업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서성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에 참여해 주신 농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주군 딸기재배농가들이 현장교육을 통해 재배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소득작물 선도농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원형/기자



군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문화나들이

군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군위읍은 지난 13일 관내 어르신 10명을 모시고 '할매할배, 문화나들이 사업'의 일환으로 마당놀이 '신뽕파전'을 관람했다.

이 사업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상대적으로 문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화공연 관람의 기회를 드리고자 읍 협의체에서는 차량 봉사팀, 세교 칼국수에서는 저녁식사를 후원하며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

다.

이날 공연을 통해 '읍 협의체'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하고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에 웃음을 전하며 힐링을 선물했다. 박철범 읍 협의체 민간위원장은 "힘든 시기에 오늘 공연이 어르신들의 활력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문화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호/기자



활기차고 발전된 내일을 위한 나눔 실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영천시지회

100만원, 영천시청년연합회 100만원

영천시는 13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영천시지회에서 100만원, 영천시청년연합회에서 100만원의 장학금을 영천시장학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영천시지회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생활개선을 위해 조직된 단체로 지역의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오고 있다.

문준용 지회장은 "영천에 아파트

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지역이 갈수록 발전되고 있음을 느낀

다"며 "발전된 영천의 주역이 될 우수한 인재들이 더욱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노력해야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천시청년연합회는 영천의 청년들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영천을 위해 일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결성된 모임으로 전통문화 보존사업, 청소년 문화사업, 내 고장 지키기 및 살리기 운동 등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지역후배들을 위해 2008년부터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해 지금까지 총 850만원에 이른다.

조영주 회장은 "활기차고 발전된 영천의 내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장학금 조성에 참여

지역의 후배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기문 이사장은 "지역의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성원에 보

답하고자 앞으로도 내실 있는 장학사업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반식/기자



김천시 쓰레기 배출문화개선은 우리가 앞장선다

생활개선 김천시연합회 회원 28명, 자원순환시설 견학

김천시는 지난 12일 생활개선회 회장단 28명을 대상으로 재활용선별장,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등 자원순환시설 견학을 실시해 쓰레기 배출문화 개선의지를 다졌다. 김천시생활개선회는 각 읍면동 분과회별로 구성되어 내고장 가구기 운동, 방문 봉사활동 등을 펼치고 있는 600여명의 여성농업인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이날 재활용선별장과 소각장을 방

문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으며 하수처리시설로 이동 하수처리과정 전반을 견학했다. 이후 환경사업소 상황실에서 김천시의 생활쓰레기 처리현황과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있었는데 교육 내 질문이 끊이지 않는 등 교육 열의가 매우 높았으며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자신이 소속된 지역회원들과 함께

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천시 자원순환과장은 "생활개선회 회원 한분 한분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신다면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배출은 반드시 정착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나부터 실천하자"고 강조하면서 "현장견학의 반응이 좋은 만큼 앞으로도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꾸준히 학생,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시설 현장견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현석/기자



'2020 실패박람회 in 부산' ... 실패 극복과 재도전을 응원한다

“실패했다. 마 개안타”

부산시는 시민의 다양한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자산화해 재도전을 응원하는 '2020 부산 실패박람회'를 22~23일 이틀간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부산시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개최하며 개인·기업·공공부문 등 모든 분야의 다양한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자산화해 재도전을 응원하고 실패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실전을 위해 이번 행사를 비대면 온택트 방식으로 개최해 선도적인 온라인 박람회 개최의 롤모델로 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실패했다 마 개안타.'라는 주제로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실패경험 공유와 재도전의 해법을 찾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유튜브와 행사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프로그램별로 16일~19일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행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모두 6개 분야이며 개막식 때 펼쳐질 '마스크 패션쇼', '부산 출신 개그맨 김원효의 특강'을 비롯해 '전화위복, Let's live on 부산경제 정책 콘퍼런스', '보이는 라디오', '청년 실패 살롱 On Air', '부산여성 모두의 경험', '재도전 끝장 난상토론', 'Show me the Fail&Challenge' 등 다양한 행사가 온라인상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실패를 주제로 한 랩 창작곡을 선보이는 'Show me the Fail&Challenge'의 접수기간은 10월 16일까지다.

특히 온라인예선을 거친 18명의 본선 진출자들 간 결승전에서는 부산 출신 랩퍼 '치타'가 행사 마지막 날인 24일에 최종 결승전 심사위원으로 나와 심도 있는 현장심사

평을 포함, 출연자 모두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갖는다.

'쇼미더F&C'는 학생부, 일반부 2개 부문에 각각 대상, 금상, 은상, 동상 1명씩, 장려상 5명씩 총상금 600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박람회가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부산시민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재도전의 의지를 다지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며 "온라인 비

대면 행사의 특성상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광남/대기자



원도심에 녹아있는 소중한 문화, 예술로 기억한다

“사회참여예술창작지원-성호창발”

창원시는 2020 창원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일환으로 오는 10월 20일까지 '사회참여예술창작지원사업-성호창발'에 참여할 전문예술인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참여예술창작지원사업은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쳐 성장해온 원도심에 녹아있는 소중한 문화자원을 전문 예술인들의 시각으로 누구나 공유하고 추억할 수 있는

창작물로 구현하고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올해 처음 시행하는 '성호창발'은 마·창·진의 삼시삼색 원도심 가운데 성호동과 그 주변 일대 주민들의 삶, 지리적, 환경적 특수성을 담은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앞으로 매년 창원 전역 원도심을 찾아 공공예술 창작물을 생산 하고



제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유형은 주민참여형, 지역기록형, 복합형이 있으나 제시된 참고 유형 이외에 새로운 형태의 창작 활동을 제안할 수 있다. 창원시에 주소를 둔 예술인으로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건수는 5건 내외, 1건당 600만원~1000만원의 창작 지원금을 활동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몽호/기자

김해시 생활체육지도자 온라인 체육교실 확대

김해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생활체육지도자 온라인 체육교실'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으로 생활체육 현장지도가 어려워지자 지난 5월부터 온라인 체육교실을 시범 운영 중이다.

그간 시는 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생활체육지도자 현장 배치를 매년 지원해왔다.

온라인 체육교실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 라인댄스, 건강체조, 축구 기본동작과 장애인 생활체육을 위한 휠체어 체조, 휠체어 스트레칭 등을 제공하며

시는 이번에 종목을 추가할 방침이다.

더 나은 수업 제공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영상제작강의를 수강하고 타 단체의 우수영상을 벤치마킹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 온라인 체육교실은 유튜브에서 김해시체육회나 김해시장애인체육회를 검색하면 참가할 수 있다.

송인용/기자

언택트시대 김해시민건강 프로젝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슬기로운 온라인 운동교실

주최: 대한체육회, 김해시, 김해시체육회

주관: 김해시체육회

제정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SPF 국민체육진흥공단, 복권위원회

도민이 함께 뽑는 최고의 혁신·적극행정 사례는?

본선 진출 16개 우수사례 대상, 경남1번가로 도민투표 진행

경상남도과 시·군 및 지방공사·공단이 함께하는 '2020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도 통합 경진대회'가 오는 10월 23일에 열린다.

올해 경진대회는 총 81건의 사례가 접수돼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예선심사위의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16건이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경남도는 본선진출 우수사례에 대한 도민투표를 15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

투표는 경남도 홈페이지 내 '경남1

번가'를 통해 진행된다. 투표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감되는 우수사례에 직접 투표하면 되고 혁신과 적극행정 분야에 각각 3건씩 투표할 수 있다. 도민투표 결과는 경진대회 평가점수 중 40%가 반영될 예정이다.

김상원 경남도 도정혁신추진단장은 "이번 투표를 통해 도민 눈높이에서 혁신과 적극행정을 펼친 사례들을 공유하고 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영광/기자

2020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발표사례

도민투표 실시

#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도민투표

○ 참여기간: 2020.10.15(목)~10.22(목)

○ 참여방법: 1. 경남 1번가 접속하기 (www.gyeongnam.go.kr/gn1st)

2. 경상남도가 물습니다 클릭

3. 혁신분야, 적극행정분야 도민투표 각 3건 투표

밀양강 자전거길, 분홍빛으로 물들어

밀양시 상남면 양림간 제방변 밀양강 자전거길 3km 구간이 가우라 꽃으로 분홍빛 물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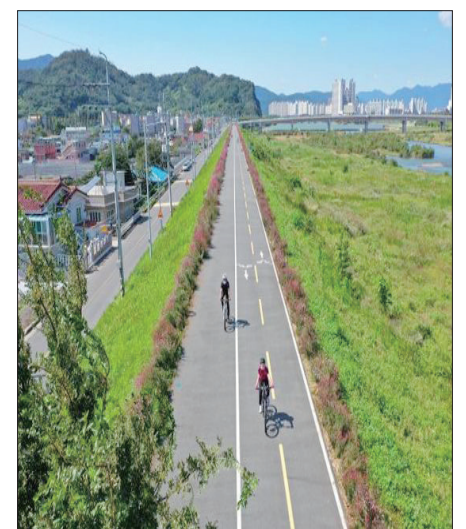
가우라 꽃은 기다란 줄기 끝에 달린 나비의 날개처럼 생긴 꽃잎이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모양이 꼭 나비가 꽃에 매달려 춤을 추는 것과 닮아 '나비바늘꽃'이라고도 불린다.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흰색, 분홍색의 꽃망울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상남면 자전거길 꽃길 조성사업'은 관내 행정기관, 사회봉사단체, 인근 주민들의 노력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가우라 꽃길에 설치한 편의시설, 수목명패와 만개한 가우라 꽃이 어우러져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동호인들과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지역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박대식 상남면장은 "앞으로 예림교~삼상교 밀양강 자전거길 7.4km 구간에도 다양한 꽃을 심어 많은 사람들이 힐링하고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e편한세상 남양뉴타운

문재인 대통령 “신안해상풍력발전단지구축”에 공감표명

BH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해상풍력개발지원본부’ 같은 추진체계 필요성 인정

전라남도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13일 10:30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인사,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8개 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 시도별로 구상 중인 지역주도형 한국판 뉴딜 사업의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남도를 포함한 6개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례 발표, 한국판 뉴딜 확산방안, 그리고 시·도

지사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의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인사에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 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발표 순서에서 김영록 도지사는

“신안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김지사는 “정부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듯이 전라남도는 정정 자원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해서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루 에너지를 위해 ‘대통령 공약 사항인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그린국가 선도에 성공시화를 써내려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을 도약으로 하는 정부 목표를 위해 전국 1위의 해상풍력 잠재량을 토대로 서울과 인천시민이 1년간 사용가능한 8.2GW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역설했다. 본 사업은 2030년까지 48조원을 투입하게 되며 단일단지로는 세계최대 규모이다. 450개 기업을 육성하고 12만개의 전남형 상생일자리 창출하게 된다.

전라남도는 지난 2월 신안군, 한



전, 민간발전사 등 18개 기관이 신안 해상풍력 1단계 컨소시엄이 구성됐고 9월에는 전남도·신안군·신안수협·새어민회 4자간 상생협약을 체결해 주민수용성도 확보했다.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는 “송배전 공동접속설비 구축에 국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기 구축, 여러 부처의 인·허가를 총괄 지원할 수 있는 ‘해상풍력개발지원본부’ 설립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해상풍력과 1GW 태양광을 통한 RE100 산단 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그린에너지

시대를 선도하고 금년 11월 ‘전남형 상생일자리 선포식’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김영록 도지사의 발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부처를 거쳐야 하는 해상풍력 발전계획이 인·허가를 일괄처리 할 수 있는 ‘해상풍력개발지원본부’의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명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서 ‘RE100 전용 국가산업단지’, ‘산단 대개조 사업’, ‘e모빌리티’, ‘초대형 풍력발전기 시험·인증 테스트베드’ 등 추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완도군, 코로나19 대응 수산업 위기 극복·발전 방안 모색

전북·광어·김·다시마·수출 등 관련 업계 대표 참석 간담회 개최

완도군은 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수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한 완도군의회 이병석 의원, 김재홍 의원과 전북·광어·김·다시마·수출 등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먼저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다시마 재고량 증가, 광어 가격 급락, 전북 소비 둔화로 수산업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북 양식 어업인들이 힘을 모아 대구, 경북 지역 등에 전북 보내기 운동과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판촉 활동을 전개하는 등 민관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했다”며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수산물 소비 및 수출이 둔화되었으나 현재는 호전되어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석 명절 선물 지역 상가 이용하기 캠페인 전개, 수산물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 비대면 해외시장 개척 사례 등을 공유했다.

추석 명절에는 완도 전복이 조기 수확되고 광어 역시 출하량이 부족해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복의 경우 3-4월에는 수출이 주춤했으나 바로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베트남과 싱가포르, 대만 등 신시장 판로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광어 가격은 4월까지 일시 하락했으나, 5월부터는 상승하며 지난해 동월 대비 42%가 오르며 현재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광어 가격은 지난달 기준 kg당 15,000원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광어·전복·유통업계 대표들은 설 명절에 대비해 생산자와 유통자 간에 협력해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른 대책과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게 가정간접식 제품과 밀키트 상품, 풀드체인 신상품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신우철 군수는 “수산물 단순 생산에서 가공을 통한 상품화 확장과 국내 시장 소비는 한계가 있으니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항은 적극 검토해 완도 수산업이 더욱 활기를 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영욱/기자

“고흥 녹동농협, 벼 소식재배 평가회 개최”

논벼 32.5주이상 고품질 벼 생산

고흥 녹동농협은 지난 12일 고흥군 도덕면 가이리 신회식씨 농가 포장에서 병해충과 쓰러짐에 특히 강한 벼 소식재배 시범사업 평가회를 가졌다. 이날 평가회에는 임성재 농협중앙회 고흥군지부장, 고흥군 이정선 농업축산과장, 양승호 도덕면장, 쌀 전업농가와 농업경영인 등 50여명이 참석해 “32.5주 농법 벼 소식재배 평가회”에 큰 호응을 보였다.

올해로 3년째 벼 소식재배를 하고 있는 신회식씨는 관행 대비 모판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육묘노력, 육묘비용 절감과 병해충 피해 감소, 관행재배 대비 20~30% 소출증가 등 ‘벼 소식 재배’의 장·단점을 비교 평가하고 친환경재배 등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녹동농협은 매년 2~3회 무안군 등 신 농법 현장방문 하고 영농교육을 통한 소식재배 농법을 2018년 처음 실시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매년 참여 농가를 확대하고 있다. 32.5주 농법 벼 소식재배는 종자를 50%이상 줄여서 파종하고 모를 3.3

㎡당 70~80포기 대신 32.5주로 심는다. 또한 한포기당 10분식 심던 모도 3~4분만 이양한다.

단위면적당 필요한 육묘상자수를 관행의 3분의1로 줄여 노동력과 비용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농법이다. 이 농법은 육묘비용의 절감 및 육묘 공간 축소, 도복, 병해충 감소 등이점이 있지만, 균일파종 및 출아, 정밀 균평, 적기이앙, 결주 최소화 등에 소홀하게 되면 자칫 수량 및 품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평가회에서 양수원 조합장은 “벼 32.5주 농법이 정착되어 농업·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농가소득 실질증대에 기여하고 고품질 벼 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군에서도 벼 소식재배가 많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정선 고흥군 농업축산과장은 “오늘 평가회를 통해서 나타난 벼 소식재배의 장점과 효과를 배가 시켜서 농민 홍보와 함께 농가의 실질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군 차원의 예산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광주 서구,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교육콘서트’ 실시간 온라인 강연 개최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정재찬 교수 초청 강연

광주 서구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2020년 제1회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교육콘서트’를 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강연으로 개최한다. 서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꿈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긴밀한 관심과 소통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매년 교육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배움에 관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콘서트는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정재찬 교수를 초청해 진행

된다. 교육에서는 지독한 현실 속의 우리가 있고 살던 마을들은 소환하는 특별한 인생수업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사전 접수는 서구청 홈페이지→평생교육→서구하이이데넷→부모교육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시 참여자는 유튜브 라이브 강연 시청링크를 문자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강의는 소통과 위로가 필요한 언택트시대에 만나는 새로운 다짐을 불러일으키는 의미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님들과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교육콘서트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유근기 곡성군수,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 수상

‘군민행복지수 1위’ 비전 실현의 탁월한 리더십 인정

전남 곡성군 유근기 군수가 한국 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는 제25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은 정량평가, 정성평가, 인터뷰 심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5단계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유근기 군수는 3개 권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대표 전략사업을 발굴해 지역성장을 견인한 점, 곡성의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정책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심층상품권의 대변신, 스트리트 갤러리 107 등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 조성, 토란과 멜론 등 지역농산

물 명품화 등 정책 전반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10월 12일 진행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직접 곡성군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박우서 이사장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 및 행정서비스 혁신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했다”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이번 수상은 항상 응원해주신 군민들과 어려운 속에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들의 노력 덕분이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특히 리서치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군민 만족도 조사결과가 어느 지역보다 높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군민행복지수 1위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남원문화도시, 전국의 청년들과 함께한 달빛아래 별소리 ‘남원살이’ 성료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는 전국의 외지 청년들을 초청해 진행한 달빛아래 별소리 ‘남원살이’가 성공적으로 종료,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달빛아래 별소리 남원살이’는 ‘남원의 자연 속에서 나의 낭만을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콘셉트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자연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경험하며 남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지난 7월 30일 참가자 접수를 시작으로 8월 12일부터 약 2주간 전국 각지에서 모인 11명의 청년들은 구도심 인근 게스트하우스와 운봉읍 소재 민박에 머물며 ‘나의 재발견’, ‘남원의 재발견’을 주제로 지역 투어와 지역 청년들의 삶을 직접 듣고 서로의 재능을 나누는 등 남원에서의 삶을 상상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별소리 프로젝트’를 통해 남원에서 느낀 고유의 전통, 소리, 자연에서의 추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화책 제작, 29초 영화제 출품, 에세이집을 집필해 전시하는 등 새로운 도전을 경험했다. 지난 9월에는 ‘남원살이’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자신들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사업 성과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향후 ‘남원살이’ 발전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자리도 가졌다. 청년들은 “남원의 다양한 문화자원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매력 안에서 일상에서 바빠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남원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내년에도 진행될 예정인 ‘남원살이’의 개선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남원

시 관계자는 “이번 남원살이를 통해 외지 청년들의 시각에서 남원의 문화, 자연 등을 연결해 새로운 가치와 매력을 발견했고 청년들이 남원에서

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 청년인구 유입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올 들어 첫 인구 증가세에 이어나갈 청사진 제시 척척

군산형 인구정책 TF팀 분야별 간담회 제안, 연구원과의 소통

군산시가 다양한 인구유입 대책을 논의하며 2021년 인구정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13일 군산형 인구정책 TF팀 분야별 간담회에서 논의된 어려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군산형 인구정책 TF팀 분야별에서 논의된 제안 사항 중 해당 부서에서 실행하기에 어려운 사업에 대해 해당 부서 계장과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수립 용역사 등 10 여명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용역 과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 2021년도 인구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지난 2월 군산형 인구정책 TF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인구감소의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6개 분야별 간담회를 총 17 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시는 올 들어 처음으로 4년 만에 인구 증가세를 보여 9월말 기준 인구는 26만 8025명으로 전달보다 43명이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월평균 260명이 줄어들어 인구의 반등없이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



에서 폭은 적지만 첫 증가세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 기세로 이어나갈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연구원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①'시민배움 공동체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및 '동네문화 카페' 확장을 통한 교육의 일상화 ②'집에서 한 달 살아보기' 등 고군산군도 장기체류 방안 및 고군산군도에 어울리는 맞춤형 축제 개발 ③'군산형 아동·청소년 연금 도입'에 대한 보편적 사회수당 제시 ④'다목적복지회관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다문화 가족 지원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전북대병원 개원 시 병상

확대를 통한 전문 간호사 등 인력 창출 최대화와 병원 인근 정주여건 개선 등에 대한 것들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발전 방안에 힘입어 사업 시행 여부에 따라 군산시 인구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군산시 정주여건의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다섯 안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각 사업의 용역 결과가 내실있는 사업 제안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완주군, 야외활동 증가 행락철 현장 중심 방역 강화

집 근처에서 가족 단위로 가을 여유 즐기기 운동도 추진

완주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 따른 방역 경각심을 높이고 가을 단풍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핵심방역수칙 준수 점검 등 현장 중심의 방역 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군은 14일 오전 군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신국섭 행정복지국장과 방역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요양원 방역대책과 PC방·노래연습장 점검, 행락철 방역 등 15개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박성일 군수를 대신해 회의를 주

재한 신 국장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으로 방역 경각심이 둔화될 우려를 낳고 있고 가을 행락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코로나19의 감염 확산도 우려된다"며 "관광객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내 단풍철 행락지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이어 "마스크 착용과 손세정, 사회적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각급 시설별 점검과 주민 행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핵심방역수칙의 핵심은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방역관리자 지정인 만큼 철저히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와 관련한 행정명령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규모 가족여행을 권고하는 등 가을철 여행방역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통장이나 이장, 청년회 등 마을공동체 모임 등을 통해 단체여행 자제를 당부하고 산행이나 야외활동을 할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사람 간 2m 이상 거리유지, 개별적인 음식 섭취, 밀폐·밀집·밀접 장소의 방문 자제 등을 적극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은 또 타 지역 요양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 내 요양시설의 방역도 강화하는 한편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김중철/기자

정현울 시장, 인구문제 지역 기관 상생협력 요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방문 인구문제 협력 요청

정현울 시장이 지역 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방문해 인구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상생협력을 요청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지난 5일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방문에 이어 14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방문해 인구문제 협력과 익산사랑운동 실천 캠페인을 홍보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인구 28만 사수, 호남 3대 도시 유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농업기술실

용화재단 직원이 익산사랑운동 실천 캠페인과 바른주소갓기 운동 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사랑운동 실천 캠페인은 실거주 미전입자 바른주소갓기, 익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타시군 거주자 익산에 내 보금자리 갓기 운동, 은퇴 후 고향에 돌아와 익산에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기 등 지역 인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정 시장은 오는 15일 익산고등학교를 방문하는 등 지역기관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력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박철용 이사

장은 "익산의 인구감소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익산사랑운동 실천 캠페인 통해 지자체와 상생협력 하겠다"며 바른주소갓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정현울 시장은 "익산시가 인구감소 문제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명품 공무원아파트 분양 등 인구정책 4대 역점 분야 사업과 함께 지역 기관이 참여하는 익산사랑 실천 캠페인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현명하게 극복해나갈 수 있다"며 "익산사랑운동 실천 캠페인에 기관·단체 등 사회 각계 각층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편백숲 산림욕장, 힐링명소 새 단장

편백숲 산림욕장 주변 편의시설 정비

진안군이 편백숲 산림욕장 입구 주변 사유지와 축사를 매입해 진입도로 정비 및 주차장 확대 등 편의시설 정비사업에 나선다.

이번 정비사업은 편백숲 산림욕장의 점진적 확장을 위해 실시되며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확대 편백나무 추가 식재 놀이시설 설치 힐링치유 공간 확보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야외활동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귀 편백숲에도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군은 관광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숲을 즐길 수 있도록 숲 생태관리인을 채용해 산림욕장 시설 유지관리와 제조작업 등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편백숲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숲 산책에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을 치유·힐링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숲속의 작은 도서관, 평상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



해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귀 편백숲은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기에 좋은 장소다"며 "이번 정비 사업으로 산림 휴양 치유의 명소로 자리

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숲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종철/기자

전북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위한 금융혁신 역량강화 아카데미 개최

전북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 선정기업 대상 핀테크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라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핀테크 창업기업의 대표와 직원이 참여한 '금융혁신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은 전라북도가 핀테크 등 금융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 육성과 유치를 통해 글로벌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 특화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도내 핀테크 창업기업의 역량강화와 안정적인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

문가 초청을 통해 국내외 핀테크 산업의 주요 이슈와 최근 개정된 데이터 3법 및 마이데이터 활용방안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아카데미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세션은 국내외 핀테크 산업동향 및 규제·제도, 두 번째 세션은 NPS 디지털 R&D전략, 세 번째 세션은 마이데이터와 스케일업 방안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 관련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창업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전라북도가 글로벌 금융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해결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국내외 많은 금융전문가들은 미래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

로 핀테크 산업 육성을 꼽고 있으며 핀테크 산업은 고용창출 등의 효과도 크다"며 "도내 핀테크 창업기업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금융을 선도 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라북도가 글로벌 금융허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일/기자



동대구 더센트로 데시앙

언택트 관광시대 제천의 신상도심명소들

달빛정원, 용추폭포 유리전망대, 솔밭공원 자연수로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의 여행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 보다 한적하고 여유로운 관광지를 찾는 일은 선택을 넘어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제천은 작년 “청풍호반 케이블카”의 개장으로 지역관광의 새 지평을 연데 이어 올해는 도심 한복판에 수로를 개설하고 역사적 유서가 깊은 의림지에 유리전망대를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시도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자가 전혀 없는 제천. 가을을 맞아 요즘 뜨는 관광명소 3곳을 소개한다.명승 20호인 의림지 안쪽에 위치한 용추폭포는 과거 콘크리트와 나무데크로 간단히 꾸민 보도다리가 전부였다.그러던 2020년 8월, 투명한 유리바닥과 경관조명을 포함한 대형 전망대가 설치되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기를 발아래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정면에서 폭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도 조성해 경관조명과 함께 교란간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를 한눈에 바라 볼 수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및 방송 등에 다뤄 소개되며 새로운 관광명소가 탄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과거 제천의 중심지였던 문화의

거리는 도심 외부 상권의 발달로 침체에 접어들었다.저녁 8시면 인적이 끊겨 캄캄하던 도심은 최근 조성된 자연형 도심 수로 “달빛정원”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고 있다.달빛정원은 원 도심을 살리기 위한 제천시의 끈질긴 노력의 산물이다.제천시 문화의 거리 일대에 마치 산 속 계곡을 옮겨놓은 듯 한 자연형 수로를 중심으로 인터랙티브 조명, LED영상, 상층부에 경관조명 등 총 연장 340m의 수로를 조성했다.밤낮을 가리지 않고 언제와도 새로운 풍경을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또한, 도심에 감성을 입히면 관광지가 된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도시재생사업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의림지 비룡담 저수지 하류에 위치한 솔밭공원은 소나무 고목 660여주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시민들의 소풍, 나들이 장소로 유명하다.

2020년 6월 제천시에서 이곳에 자

연형 수로를 조성해 깨끗한 물이 흐르는 생기 넘치는 공원으로 재탄생했다.평소보다 찾는 이들이 3배 이상 늘어난 이곳은 특히 어린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우거진 소나무 숲이 주는 특유의 안정감으로 심신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힐링 명소로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안성맞춤이다.

최만식/기자

'2020천안예술제' 분산 축소개최

9개 예술단체 회원들 창작발표

한국예총 천안지회가 주최하고 천안시가 후원하는 제17회 '천안예술제'가 10월 한 달간 도솔광장 및 삼거리갤러리에서 분산 개최된다.

이번 예술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대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협회별 버스, 경연대회 등 관람객 밀집이 예상되는 종목은 전면 취소하고 온라인 요소를 가미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관람객 발열체크 및 객석 띄어 앉기 등 철저히 방역수칙을 마련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막식을 제한된 관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한다는 계획 아래, 음악·미술·무용·연극·연예·국악·사진·문인·영화 등 9개 예술단체 행사는 회원중심의 창작발표 형식으로 펼쳐지게 된다.

17일 오후 4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협회별 독자적인 영역에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국악협회 '국악의 멋과 흥' 미술협회 '오늘의 미술감성전 사진작가협회 '행복을 주는 삶의 오일 장터 사진전' 문인협회 '항거100년의 봄 시화전' 음악협회 '제4회 도솔음악회' 연극협회 '마당극 능소전' 무용협회 '춤으로 그리다' 연예협회 '2020트롯 콘서트' 영화협회 '단편영화 특별한 하루' 등 천안예총 소속 9개 협회가 25일까지 분산 개최한다.

이번 천안예술제에서는 23일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예술문화"를 논하면서 언택트 시대, 다양한 예술 문화 활동을 모색해 가는 연찬의 시간도 갖는다.

예술제를 주최하는 현남주 회장은 "문화예술의 본질은 창작과 향유에 있지만, 이번 예술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창작에만 집중하는 예술제로 기획했다"며

"공감과 확산을 이루는 예술제 본연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예술에 목말라하는 시민들에게 활기를 주겠다는 의지 속에서 천안예술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예술 축제에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충남 청양에서 기능성 멜론 '가바론' 탄생

신경전달물질 가바 함유...뇌기능 개선에 도움

각종 기능성 식품이 현대인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가운데 충남 청양 지역에서 가바 성분을 함유한 새로운 멜론이 탄생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새 멜론의 이름은 '청양 가바론'으로 뇌세포 대사촉진과 뇌 혈류 개선 등 갱년기 장애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통 가바라 부르는 감마 아미노부티르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억제성 신경전달물질로 갱년기 장애 및 초기 노화 정신장애 개선, 불안해소, 항경련 및 항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양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3일 장평면 분항리 한 재배농가에서 '가바론' 실증시험 평가회를 열고 첫 수확한 가바론의 우수성을 알렸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6월 추석 출하를 목표로 실증재배를 시작, 6일부터 수확작업에 임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수확된 멜론을 계명대학교 연구팀에 보내 가바 성분 함유량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 유의미한 유효성분을 확인했고 산업화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설명이다.고소득 작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농업기술센터는 '청양 가바론'을 상표등록 출원했으며 포장디자인 개발과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보고회에 참석한 김돈곤 군수는 "실증재배 성공으로 청양지역 멜론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됐다"며 "농가 조직화와 출하시기 조절을 통해 고소득 효과 작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배자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친환경 재배를 통해 생산된 고품질 가바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양군은 내년부터 대전 유성구

소재 청양머거리직매장 등에서 가바론 구입이 가능하도록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농업기술센터 남윤우 지원기획팀장은 "내년에는 재배면적 확대와 가바 함유량을 높이는 재배법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재배농가 소득향상과 소비자 건강증진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공주시,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탄력...26억 추가 확보

한옥 신축 최대 1억 지원, 2015년 이후 총 220건 사업 추진

공주시가 '2021년도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에 국도비 26억원을 확보하면서 사업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14일 시에 따르면,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은 보존 육성지구 내 불량 건축물을 정비하고 역사·문화·환경과 어우러지는 전통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화재청은 내년도 국비 예산 61억원을 전국 4개 고도지역에 차등 배분한 가운데, 공주시는 올해 확보한 8억원보다 225% 증가한 18억원을 확보, 도비 포함 총 26억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고도지구 내 한옥 등을 신축 또는 개축할 경우 총 공사비의 2/3 범위에서 최대 1억원을 지원해주고 한식당장은 최대 2천만원,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는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2015년 사업 시행 이후 지난 9월까지 한옥 신축 등 주거환경 개선 100건, 한식 당장 및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120건 등 총 220건의 사업이 추진됐으며 현재 한옥 신청건수가 100건에 달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한옥의 경우 단순히 주거용 뿐 아니라 게스트하우스, 찻집, 편의점, 음식점 등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



용되면서 관광객 유치 및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으로 한옥뿐 아니라 오래된 구옥에 대해서도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는 등 사업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섭 시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을 통해 명실상부한 세계유산도시이자 백제의 고도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관광1번지 단양군, 가을 식도락 여행지로 인기

대한민국 관광1번지 단양군이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아 식도락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역 특산물로 만든 맛난 음식이 즐비한 단양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처럼 단양팔경 유량을 앞둔 관광객들이 빼놓지 않고 필수로 거쳐야 할 먹방 코스들로 유명하다.

1985년 중주댐 건설로 현재 터인 단양을 수변에 자리를 잡은 단양구경시장은 조선 영조 때 편찬된 동국문헌비고에 기록될 만큼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의 대표 시장이다.순대와 만두, 치킨, 족발 등 대중적인 음식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단양 황토마늘, 아로니아 등 농산품과 만나 건강하고 맛난 먹거리로 입소문 나기 시작해 최근에는 '먹부림'이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남녀노소 관광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먹방 성지로 자리매김했다.

전국에 내로라하는 먹거리 시장인 서울 광장시장과 강릉 중앙시장, 대구 서문시장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게 방문객들의 평이다.

거기에 상설시장과 전통 5일장이 공존해 장날인 1일과 6일이면 전국에서 올라온 농수산물들로 볼거리와 살거리가 풍부해 장날은 손잡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다.

단양 강변을 따라 조성된 쏘가리 특화거리도 빼놓을 수 없는 식도락 코스 중 하나다.

썩은 맛이 일품인 쏘가리는 회로 먹어도 좋지만 갖가지 야채와 함께 끓여내는 매운탕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쯤 뱃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가을철 최고의 별미 중 하나다.쏘가리매운탕은 물론이고 메기, 동자개 등으로 요리하는 잡고기 매운탕도 있어 입맛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수중보 건설로 넘실대는 단양강변의 커피거리 또한 진한 커피향과 각양각색의 디저트를 맛보려는 맛객들에게 핫플레이스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단양강의 아름다운 풍광은 덤으로 즐길 수 있다.이 외에도 단양 도심에는 마늘정식, 곤드레 정식, 약선 요리 등 각양각색의 향토음식점들이 즐비해 기호에 따라 다양한 단양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근래에는 도심에 벗어난 외곽지역 농가 맛집들이 내놓는 건강 밥상 또한 농촌의 맛과 멋을 느끼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군 관계자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에 더한 단양 식도락 여행으로 건강도 챙기고 코로나19로 쌓인 스트레스도 모두 날려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에는 단양군 향토음식연구회에서 지역의 잊혀져 가는 향토음식 49종을 실은 요리 책자를 발간해 옛 음식을 그리워하는 지

역 주민들과 단양의 참맛을 새롭게 경험하고픈 맛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최만식/기자

고성군, '건강중심 거진 전통시장 만들기' 추진

고성군보건소가 거진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10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상인 30명을 대상으로 하며 시장점포 운영 시간을 고려해 오전·오후 두 팀으로 나누어 주 2회 진행한다.

실비요가 전문강사를 초빙해 거진 전통시장 상인회 2층 회의실에서 진행하며 참가 신청은 상인회에 할 수 있다.

요가를 통한 상인들의 관절 유연

성 강화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BMI 측정 및 혈압, 혈당 및 콜레스테롤 검사 등 기초검사까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있어 생업으로 병·의원에 자주 가기 어려운 상인들의 기초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변원용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된 거진 전통시장에 이번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활력과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나주시, 시민의 상 수상자에 박종주, 조복래 씨 선정 이현호 서천군의회 의원,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수상

지역개발부문, 사회복지부문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거쳐

나주시가 '2020년 나주시민의 날' 기념식의 꽃인 '시민의 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총 6명의 후보자 중 지역개발부문 박종주씨, 사회복지부문 조복래씨를 수상자로 각각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던 공로를 공식 예우하는 '나주시민의 상'은 지역개발 사회복지 중효도의 산업경제 교육문화 등 총 5개 부문별 1명씩을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올해 시민의 상 주인공이 된 박종주 씨는 남평을 출신으로 1999년 KT&G나주시점장을 역임했다.

박 씨는 당시 '고향에서 담배 사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담배 판매 배정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주시가 약 35억원의 지방세를 수입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2012년에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송정 ~ 목포 구간' 노선 결정을 앞두고 호남고속철도 나주역경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 범도민 결의대회를 이끌며 오늘날 KTX나주역 정착에 힘을 보탰다.

현재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공



주전남지부장을 역임하면서 '안성현 기념사업회'를 조직해 나주의 인물인 안성현 선생 기념사업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복지부문 수상자인 조복래 씨는 이북 출신으로 1951년 한국전쟁 때 나주에 내려와 당시 전쟁고아를 위해 설립된 금성원에서 생활했으며 현재는 아동복지시설로써 금성원을 있게 만든 장본인이다.

1965년 원감 재임 시 낡은 목조 건물을 철거해 현대식 건물로 재건축하는 등 시설 개선에 힘써 1200여명의 위탁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조 씨는 지난 20여년 간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기아대책위원회 등 소외되고 어려운 아동을 위한 나눔의 삶을 지속해왔다. 2000년부터 8년 간 아동복지시설

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공로상을, 2015년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특별공로상을 수상하는 등 아동복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다.

나주시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나주시민의 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자 본인과 가족을 제외한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나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12만 나주시민의 이름으로 수상하는 영예로운 상에 선정되신 분들께 축하를 전한다"며 "지역사회 상생과 발전을 위한 귀감이 되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서천군의회 이현호 의원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하는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은 지방자치 실시 25주년을 맞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전국 공모를 거쳐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성과를 보여준 국

회의원,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을 선정하고 13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시상식을 열어 2020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여했다.

이현호 의원은 주민복지 및 문화, 교육, 환경, 경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힘썼으며 군민 서로가 소통하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낮은 곳에서 군민과 가장 가까이 하면서 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서천군의회 8대 전반기 기간 동안 서천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서

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등 11건의 조례안을 발의하고 5분 발언



을 통해 지역민을 위한 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주민생활을 개선하고 주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왔다.

이 의원은 "조선의원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현장을 찾아 주민에게 희

망과 행복을 주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후반기 기간 역시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구석구석 군민의 삶을 챙기는 의원이 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고정화기자

2020년 순천시민의 상 수상자 강성채 순천농협장 선정

10월 15일 제26회 순천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

2020년도 순천시민의 상 수상자로 순천농업협동조합 강성채 조합장이 선정됐다.

순천시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지역을 빛낸 순천시민의 상 후보자 추천 공모를 진행해 총 5명의 후보자가 접수됐고 사전심사, 결정조회 등 심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1명이 추천됐다.

순천시에서는 시민의 상 수상자인 강성채 조합장은 평생을 농업분야 전문가로 일하면서 지역 농협을 단일 농협으로 통합해 순천농협이 전국 최대 규모로 성장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했으며 모바일 기반 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과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추진으로 순천 농업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역 내 쟁쟁한 분들이 후보자로 접수됐고 위원회 위원들의 심사숙고한 심의로 한 분

이 최종 후보자로 추천됐다. 후보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지역을 위해 항상 앞장 서 주시는 분들인데 모두에게 시민의 상을 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시는 만큼,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순천 만들기에 전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박정현 부여군수,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응원 캠페인 동참



다음 주자로 진광식 부여군의회 의장, 김정섭 공주시장, 김돈곤 청양군수 지명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13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보건의료, 돌봄 등 대면 노동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참여했다.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보건의료·환경미화·운송·배달업 종사

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자 시작됐다. 노박재 서천군수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박정현 군수는 "코로나19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필수노동자 여러분을 응원한다"

며 "노동자 여러분이 존중받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캠페인에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고정화기자

증평군의회 장천배 의원,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증평군의회 장천배 의원이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자치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헌정회에서 주관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헌법가치 수호와 국민복 증진, 국가 미래전략 수립 등에 기여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장 의원은 3선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의회 발전을 물론, 주민화합 및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천배 의원은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성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STICKER

네임스티커 & 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디자인다해
TEL: 031.984.8245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박인현 개인전 개최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1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박인현 개인전'이 열린다.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국내외 45회의 개인전과 400여 회의 단체·기획·초대전에 출품한 바 있다.1989년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선정'제8회 석남미술상',2005년 북경아트엑스포 은상',2009년 한국미술상', 2018년 월간미술세계 선정'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했으며 전북대학교 예술대학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립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 전북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전주문화재단 이사, 연석산미술관 관장을 맡고 있다.작가의 작품세계를 이루는 주된 기조는 전통회화의 현대적 모색이다.

현실과 비현실의 세계를 넘나들며 전통의 목직한 감옥 위에 현대, 곧 지금이라는 시대적 감성을 덧입혀 가는 새로운 전통에로의 도전이라 하겠다.작가의 작품에 주조를 이루고 있는 우산은 스스로가 비를 좋아해서 자연스레 선택한 대상으로 문명의 산물로서 현대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비 오는 날의 풍경으로 빗속에 반쯤 젖은 우산은 서정적 낭만의 대명사가 되어 잔잔한 감성마저 자극하며 낭만적 시상을 떠올리게 된다.작가는 이러한 우산을 창의적인 예술로 서만이 가능한 발상으로서 또 다른 생명체로 둔갑시켜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

일종의 생명의 요체로 둔갑한 우산들은 화폭 속에서 허공을 부유하는 새와 나비가 되기도 하고 나뭇가지로 실려져 꽃과 잎, 사과가 되기도 하고 자연풍광 속에 굴절되어 우산산수를 이루기도 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게 되는 그의 대표작 '비가. 1987년작'을 33년 만에 다시 볼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다.이 작품이 탄생해진 동기는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인 1986년 9월 작가에게 첫 딸이 태어



나고 8일째 되던 날,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버림목이었던 어머니를 갑자기 여의게 되는 커다란 충격 속에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갖게 되면서 작품에 대한 영감을 떠올리게 된다.시작은 새 생명이 꿈틀거리며 이 땅에 태어나고 있는 과정을 상징화했으며 다음 단계는 보호자의 보살핌 속에 사회에 적응해가는 유년기, 그리고 청년기는 힘찬 폭포를

설정해 상징화했으며 장년기는 세상을 여유롭고 평안하게 향유하는 평온함을 형상화했다.노년기는 삶의 결승점에 다른 시기로서 유연한 안개를 통해 자연으로 화해가는 형상을 연출했다.이 작품은 1989년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선정'제8회 석남미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겨준다.

김승일/기자

“레미제라블 갈라콘서트”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레미제라블 갈라콘서트”가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영화와 뮤지컬로 만나보았던 레미제라블의 음악 중 우리에게 익숙한 곡을 선정해 갈라 형태로 들려줄 예정으로 지난해 공연장 상주단체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만큼 수준 높은 무대가 예상된다. 장발장役의 박진철이 부르는 '집으로'를 비롯해 주옥같은 모음곡을 전라북도 대표 성악가 8인과 드림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감동적인 연주로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을 위해 공연장 거리두기 객석제, 방역 소독, 발열 체크, 자가 문진표 작성 등 생활 속 거리두기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며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미작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김현태/기자



“고품격 문학잡지 못지않다”땅끝순례문학관 소식지 눈길

송기원 등 입주작가 원고 수록, 수준높은 작품으로 화제 만발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과 백련재 문학의집에서 발간되는 소식지가 명품 문학잡지 못지않은 수준높은 작품들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땅끝순례문학관은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 소식과 백련재 문학의 집 입주 작가들의 글을 수록한 소식지를 올해부터 발행하고 있다.여름호에 이어 3개월 만에 발간된 가을호 소식지에는 해남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의 신작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문학작가들이 머물며 창작 활동을 할수 있는 복합문화공간'백련재 문학의 집'에는 국내 유수의 작가들이 참여, 총 8실의 창작실이 모두 입주를 마치며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이번 소식지에는 자기

아성 성격장애, 나의 시작, 쓸쓸함의 등거리, 불꽃 등 작가들이 백련재 문학의 집에 머물며 직접 창작한 작품을 실었다.또한 문학관 소장 유물에 이야기를 더한 이원화 작가의 스토리텔링 원고'언어의 신 서정시인 박성룡'도 흥미를 더하고 있다.모두 높은 작품성을 갖춘 글들로 고품격 문학잡지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는 입소문을 타고 있다.소식지는 1년에 네 차례 정기적으로 발행될 예정이다.앞서 1호 소식지에는 백련재 문학의 집 1기 입주작가인 행복의 기준, 길은 길에 연해 끝이 없고 북극에 사는 포비에게 등 작품이 실렸다.소식지는 전국 문학관·유관기관, 도서관, 지역 카페 및 문화공간 등에 배포되며 땅끝순례문학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백련재 문학의 집과 땅끝순례문학관은 국내 유수의 작가들이 찾

아오면서 살아있는 문학의 현장이라 할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며 “좋은 프로그램 발굴과 지속적인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문학을 널리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영용/기자



구로구, 제2회 민주주의축제 ‘공감, GURO’ 개최

14~30일… 양성평등 공모전, 청년토코소, 협치회의, 민주주의 관련 영화 상영 등

구로구가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제2회 민주주의 축제 ‘공감 구로’를 개최한다.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행사 위주로 진행한다.

구로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공감 구로’ 민주주의 축제를 올해도 실시한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는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시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일상 속 민주주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축제는 구로구협치회의, 구로공익단체협의회, 구로구, 구로구의회가 주최하고 구로구 민주주의 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

‘공감 구로’ 축제에서는 ‘언제 어디서나민주주의.Bye코로나.By구로.’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축제 첫날인 14일에는 주민참여예산 총회가 열리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12일부터 14일까지 구민, 관내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제안 선호사업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 사업을 발표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사업 제안부터 결정까지 전 과정에 구민이 참여해 내년도 예산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참여 제도다.19일부터 28일까지는 ‘민주야 시장가자’ 이벤트가 펼쳐진다.구로시장, 남구로시장, 가리봉시장, 고척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 3만원당 경품 응모권 1매를 지급한다.30일 추첨을 통해 은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19일부터 29일까지는 ‘신영복 숲길에서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황동 더불어 숲길, 푸른수목원 일대를 걸으며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오카리나 연주 관람, 천연염색 체험도 할 수 있다.총 8회 열리며 사회적 거리를 감안해 회당 5~10명 정도 참여가 가능하다.23일까지 ‘일상 속의 양성평등’을 주제로 다큐, 드라마 등 영상 공모전도 실시된다.우수작을 선정해 28일 시상할 예정이다.

26일 저녁 7시 구청강당에서는 청년릴레이 토코소 'ON-AIR : 해야해서 한다'가 진행된다.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접속자는 댓글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다. '서울시 청년정책 및 지역기반 청년활동'을 주제로 청년정책에 대한 강연과 소통이 이어진다.

29일 오전 11시에는 구청 강당에서 '민주주의의 꽃, 구로구 협치회의'가 진행된다.협치공론의 장을 주제로 민관이 협력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안양천 다목적 광장에서는 '협치시네마 in the car' 자동차 극장이 마련된다.30일에는 '재심', 31일에는 '남산의 부장들'이 저녁 8시에 상영된다.역사 속 민주주의를 회상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27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회당 80대까지 선착

순 접수 받는다.

입장료는 무료. 31일 오후 2시 구청 강당에서는 관내 청소년의회의원들이 '이제는 내가 직접 결정한다.'

청소년의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상임위원회발안 건표표 등을 진행한다.한편 구로구는 지난해 개최한 제1회 구로마을민주주의 축제 '공감 GURO'가 지난날 열린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역문화 활성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과거 구로동맹파업 등 노동운동과 시민사회 활동이 활발했던 구로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비대면 참여 방식을 활용해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고품격 문학잡지 못지않다”땅끝순례문학관 소식지 눈길

송기원 등 입주작가 원고 수록, 수준높은 작품으로 화제 만발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과 백련재 문학의집에서 발간되는 소식지가 명품 문학잡지 못지않은 수준높은 작품들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땅끝순례문학관은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 소식과 백련재 문학의 집 입주 작가들의 글을 수록한 소식지를 올해부터 발행하고 있다.

여름호에 이어 3개월 만에 발간된 가을호 소식지에는 해남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의 신작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문학작가들이 머물며 창작 활동을

할수 있는 복합문화공간'백련재 문학의 집'에는 국내 유수의 작가들이 참여, 총 8실의 창작실이 모두 입주를 마치며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번 소식지에는 자기애성 성격장애, 나의 시작, 쓸쓸함의 등거리, 불꽃 등 작가들이 백련재 문학의 집에 머물며 직접 창작한 작품을 실었다. 또한 문학관 소장 유물에 이야기를 더한 이원화 작가의 스토리텔링 원고'언어의 신 서정시인 박성룡'도 흥미를 더하고 있다.

모두 높은 작품성을 갖춘 글들로 고품격 문학잡지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는 입소문을 타고 있다.

소식지는 1년에 네 차례 정기적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앞서 1호 소식지에는 백련재 문학의 집 1기 입주작가인 행복의 기준, 길은 길에 연해 끝이 없고 북극에 사는 포비에게 등 작품이 실렸다.

소식지는 전국 문학관·유관기관, 도서관, 지역 카페 및 문화공간 등에 배포되며 땅끝순례문학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백련재 문학의 집과 땅끝순례문학관은 국내 유수의 작가들이 찾아오면서 살아있는 문학의 현장이라 할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며 “좋은 프로그램 발굴과 지속적인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문학을 널리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영용/기자

하동초 박서경, 전국국악경연대회 종합대상 수상

하울림, 제9회 태안전국국악경연대회 참가...판소리로 학생부 종합대상 영예

하동청소년예술단 하울림은 하동 초등학교 6학년 박서경 학생이 제9회 태안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학생부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태안전국국악경연대회는 전통의 소리와 가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별주부전' 발원지에서 우수한 국악인재를 발굴하고자 매년 개최해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

태안아리랑보존회와 한국판소리보존회 태안군지부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0월 태안문화원 아트홀에서 일반부 단체 학생부 등 3개 부문의 비대면 동영상 심사로 치러졌다.하울림에서 판소리를 시작하자 4년 된 박서경 학생은 이번 경연대회 판소리 기악 등을 아우르는 학생부 종합대상

을 차지해 충청남도교육감상을 수상했다.하울림에서 초등부 상시를 맡고 있는 박서경 학생은 앞서 지난 7월 부산에서 열린 제34회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와 8월 개최된 제20회 진해전국국악대전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국악에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지역 학생들에게 사물놀이, 농악, 판소리, 무용, 모듬북, 줄타기 등을 가르치고 있는 하울림은 코로나19 이후 첫 출전한 제22회 전국농악명인 경연대회에서 중·고등부 대상 등 개인·단체 6개 부문을 휩쓸며 국내 최고의 청소년예술단으로 우뚝 섰다.지난해에는 전국국악경연대회 우수상, 전국농악명인경연대회 단체 은상, 국내 최고 권위의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장원을 수상하는 등 매년 전국 규모의 국악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여두화 단장은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전국대회가 많이 열리지 않아 아쉬움이 컸는데 하울림의 전

국농악명인 경연대회 6개 부문 수상에 이어 박서경 학생이 올해 3개 대회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적을 거둬 하동청소년예술단의 명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정홍희/기자



시민행복 도시미래

스마트시티 구축, 도시재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공영주택건설 까지
시민이 행복한 도시의 미래가 대구도시공사에서 시작됩니다.

www.duco.or.kr

 대구도시공사





FAIR TRADE
공정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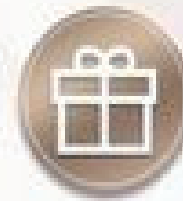
FAIR TRADE
TOWNS
KOREA

광명시

공정무역도시 공식 인증



공정무역 도시 선언 후
11개월간 공정한 소비 앞장



공정무역제품 판매점
목표치 3배 넘는 36개 확보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및
공정무역 인식 확산



공정무역가게 협의체 구성,
공정무역오픈박스 프로그램 운영 등

광명시는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